

2027 대성회 준비 워크숍 개막... '100만 영혼 구원' 비전 공유

‘교회여 일어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주제 아래 전국 지역대표 500여 명 참석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국 지역본부 대표 워크숍이 ‘교회여 일어나라! 민족을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개막하며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 비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전국 지역대표단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번 모임은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100만 영혼 구원’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예배... “그리스도를 얻는 삶” 박용배 목사(인천)의 사회로 첫날 오후 열린 개회예배에선 김유민 목사(대표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신실라 목사(경북지역 사무총장)의 성경봉독과 황공주 찬양사역자의 특송 후 김병호 목사(총장사단장)가 ‘그리스도를 얻는 삶’(빌 3:8-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물질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모든 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길 원했던 사

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며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의가 주어진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며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한국교회를 일으켜 민족 복음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그리스도를 얻는 삶은 그 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연환 목사(광주전남 대표본부장)의 축사와 한경희 목사(여성본부 대표본부장)의 환영사가 있던 뒤 진등용 목사의 축사로 예배를 마쳤다.

맹연환 목사는 축사를 통해 “부흥은 언제나 시대의 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경희 목사는 격려사에서 “전국 120개 지역본부가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국 지역본부 대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고, 지역마다 영적 불씨를 지핀다면 100만 영혼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총재 “100만 영혼 구원 위한 부흥의 마중물 되길”

예배 후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태희 목사는 환영사에서 “1907년 평양대부흥의 불길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의 뜨거운 열광을 다시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77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절실한 때”라며 “과거 선배 목회자들이 ‘오직 성령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인에 의하여’를 외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워크숍의 목표로 ‘100만 영혼 구원’을 제시하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회개와 성령운동이 일어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거대한 사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골 4:6)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며 “이곳에 모인 지역 대표단이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 각 지역 교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워크숍 첫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로 비전이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복음화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이영훈 목사(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대표회장)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으며 그 영적 유산이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족복음화는 한 번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이 한국교회가 맞은 시대적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전도와 돌봄, 다음세대 양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외부총재)는 축사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8천만 민족복음화의 비전은 단순한 숫

자를 넘어선다”며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워크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방안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며, 마음을 합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2박 3일 동안 말씀강연·기도로 비전 모색

워크숍은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와 함께 김우경 목사, 김대성 목사, 강복렬 목사, 김유민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하며 민족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을 나눈다. 오후에는 힐링콘서트와 강연이 이어지고, 저녁 집회에서는 장사무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 날에는 이기도 목사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이어 장순진 목사가 폐회예배 설교를 맡는다. 참가자들은 합심기도와 토론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천할 복음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 교회와 지역본부가 하나 되어 2027년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복음전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규탄... PC주의에 경도”

시민단체들, 인권위 결정 비판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약해진 서구 교회, 세계 교회에 미치는 6가지 영향 >> 12면

3년 만에 돌아온 힐송, 새 앨범 'Great I AM' >> 24면

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3월 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희수재단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처분을 받고 이후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따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재단이다.

또 “변희수재단의 설립 목적이 성소수

자 군인 및 시민의 인권 보호, 차별 방지 활동 등이기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변희수재단의 손은 들어주면 서도 구성원의 동성애 반대 사유로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법인 설립을 불허한 인권위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요건의 미비 사유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성애 반대 활동을 걸고넘어져 기각시킨 건 어불성설 사유이며, 다수 국민을 모독한 반인권적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미화하고 부추길 경우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변희수 씨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답습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하고, “군대 내 트랜스젠더 양산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고 이는 곧 군기강 문란 및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나팔수로서 국제인권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영무채처럼 되뇌이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가치를 짓밟고 조기성애화교육을 강조해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집요하게 권고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주기관차처럼 성혁명이테올로지, 젠다이테올로지, PC주의 전파에만 골몰하며 인권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마저 의심받는 인권위는 더이상 국민행



시민단체들이 9일 인권위 앞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한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세 축내는 국가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PC주의에 경도되고 편향적 의식으로 가득 찬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행세를 유지시킬 가치가 없는 암적 국가기관이다. 즉시 해체하라”고 했다.

특히 “자살한 트랜스젠더를 미화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 우려와 군대 내 트랜스젠더 양산 위험성 등을 초래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예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우크라 포로 북한군,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인도



적 차원에서 북한군 병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 언론과 접촉하며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들의 신병 처리 문

제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회는 러시아가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러시아 측이 이들을 넘겨받게 될 경우 결국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쟁이 종결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포로 송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제네바 제3협약을 언급하며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 및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신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포로 교환이 이뤄져 온 점도 변수로 주목됐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병사의 귀환을 위해 포로 교환에 나설 경우 북한군 포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함께 약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는 북한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북한 병사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국 전쟁에 투입된 젊은이

들로, 많은 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포로가 되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며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군 역시 한반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북한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36주 낙태는 사실상 살해 행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이른바 ‘임신 36주 낙태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만삭 단계의 낙태는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생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학적·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박탈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법원은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뒤 그 과정을 유

튜브 채널에 공개한 산모 권씨에게 징역 6년의 징역유예를 선고했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은 성명에서 “임신 36주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사실상 출생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출생 가능한 생명을 제거한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모체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의 독립

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만삭 단계에서의 낙태가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태아의 생명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태아를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불편하면 제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형량과 관련해 “임신 36주와 같

이 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단계에서 생명을 사멸에 이르게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산모와 의료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산모에게 내린 형량이 의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낙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생명권이 흔들리는 사회에서는 어떤 인권도 온전히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책임 있는 출산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연합은 “앞으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시협, ‘2026 신년기도회’ 개최... 서울 시민 안녕과 화합 기원

서울특별시교회와시정협의회(교시협 의회)이 9일 오전 7시 20분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2026 신년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 250명은 서울 시민들의 평안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 교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 한국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사회를 섬겨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노력이 오늘날 서울과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하는 데 중

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성경 속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를 전하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회복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단체 사진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서울시

한인 선교사 은퇴 준비 돕는다... KWMF·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 업무협약

한인세계선교사회(대표회장 송상천, KWMF)와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소장 김남순)는 지난 8일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와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오랜 기간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겪을 수 있는 주거 문제와 노후 생활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선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는 KWMF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와 재정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선교사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상담과 은퇴 준비 컨설팅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비용 없이 지원된다.

KWMF는 회원 선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은퇴 준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는 등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김남순 소장은 “평생 선교 사역에 헌신해 온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

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3층 연금 체계 마련과 주거 안정 등 실질적인 노후 대비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4월 ‘제10회 생명의사역 콘퍼런스’ 열려

대구동신교회 생명의사역훈련원(원장 권성수 목사)이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를 대상으로 한 ‘제10회 생명의사역 콘퍼런스’를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생명의사역의 방향을 나누고, 이를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동신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생명의사역자로 세워지는 목회를 목표로 사역해 왔다. 교회는 지난 약 20년 동안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으며, 2025년 기준 교회 예산은 약 17배 늘었고 교인 수도 24년 사이 800명에서 9000명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세미나 모습. ©기록일보 DB

이번 콘퍼런스의 주강사는 생명의사역훈련원 원장 권성수 목사가 맡는다. 권 목사는 총신대학교에서 14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후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섬겼다. 그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목회 현장을 연결하는 균형 잡힌 사역을 강조하며, 성경신학에 기초한 ‘생명의사역’ 목회 철학을 제시해 왔다.

콘퍼런스 기간에는 ‘생명의사역 태도론을

포함해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성수 목사가 생명의사역의 핵심 내용을 강의하며, 문대원 목사는 생명의사역 철학을 담은 목회 리더십을 소개한다. 또한 성령 설교와 생명의사역을 결합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 발표도 함께 마련된다.

참석자들에게는 대구동신교회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사용해 온 생명의사역 관련 자료가 제공되며, 콘퍼런스 이후에도 각 교회가 이를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생명의사역훈련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자세한 안내는 생명의사역훈련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히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히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히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아시아감리교협의회, '아시아 선교 협력 선언문' 채택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 감독교회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감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 선교전략회의 주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아시아 감리교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이끌었다.

김 감독회장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 감독교회를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주재하며 아시아 지역 선교 전략과 협력 사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MC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네팔의 수도에서 열렸으며, 김 감독회장의 AMC 의장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 2월 필리핀에서 열린 선교전략회의 이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교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사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11개국에서 약 50명의 감독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감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해 김성복 감독(서울연회), 황규진 감독(중부연회), 김종필 감독(중앙연회), 백종준 감독(충북연회), 박인호 감독(충청연회)이 참석했으며, 선교교 황병배 총무도 함께 했다.

회의에서 김 감독회장은 의장으로 회무를 진행했고, 기감 소속 감독들은 각 연회를 소개하며 주요 사역과 기도제목을 나눴다. 황병배 총무는 폐널토이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논의 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폐널토이에서는 자연재해, 전쟁, 종교 탄압, 다음세대 사역 등 각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감리교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선교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시아 감리교회 간 연대와 공동 선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제회의를 처음 주관한 네팔 감리교회는 수면 고무팀 감독의 리더십 아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각국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수면 감독은 기감이 파송한 선교사 출신으로, 현재 네팔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다.

한편 김정석 감독회장과 참석 감독들은 마지막 날 아침 기감 파송 네팔 선교사 소속 선교사 14명(정 21명)을 초청해 아시아 선교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시아 감리교회 간 연대와 공동 선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김진영 기자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순교 정신 이어가는 계기 되기를”

예장 합동 총회, 토마스선교사 기념관 착공

1866년 대동강 인근에서 성경을 전하다 순교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선교사의 신앙과 헌신을 기리는 '토마스선교사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예장합동) 산하 토마스선교사기념관설립위원회(위원장 태준호)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에 마련된 부지에서 기공감사에배와 함께 착공식을 진행했다.

두무진은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과 1866년 두 차례 방문해 한문 성경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해 오는 9월 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념관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신앙을 기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교육·선교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1부 감사예배는 위원장 태준호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무 김형곤 장로가 기도했고, 회계 한병지 장로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총회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대사명, 대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부총회장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토마스선교사기념관 건립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사역"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념관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총회 산하 교회들이 다시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특히 다음 세대가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순교 정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총회 서기 김용대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인천노회장 이근준 목사,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

수, 총회 부서기 유병희 목사, 박상준 백령면장 등이 헌영사와 축사를 전했다.

유해석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역사 속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고 때로는 왜곡된 시각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며 "이번 기념관 건립은 그의 순교 정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을 다시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면장은 "이번 기공식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기리는 행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축위원장 김태섭 목사는 경과보고에서 "지난 1월 27일 대지 480평과 도로 120평, 건물 2동(119평)을 포함한 부지를 5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 자료 전시 공간과 예배실, 카페 및 VIP실, 숙소 등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념관은 총 158평 규모로 건립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20억

원인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3부 기공식에서는 착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시삽식이 진행됐으며, 사공교회(담임 이봉우 목사)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두무진항에서 기념관까지 약 700m 구간을 '토마스길'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순례 동선을 따라 걸으며 토마스 선교사의 발자취와 순교 정신을 되새길



예장 합동 총회가 토마스선교사 기념관 기공감사에배를 개최하던 모습. ©예장 합동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태준호 장로는 "토마스선교사기념관이 한국교회에 영적 회복과 선교 열정을 다시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

라"며 "한국교회 선교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이 사역에 교단 산하 1만 2천 교회와 230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설립 28주년' 성민원 "아비목회·어미복지 정신 이어갈 것"

8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감사예배 및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성민원이 설립 2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성민원은 최근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예루살렘예배당에서 '성민원 설립 28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민원은 군포제일교회가 '아비목회, 어미복지의 정신으로 설립한 사회복지 사역 기관이다.

1부 예배는 성민원 이사장인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식전 찬양은 군포제일교회 송암어린이합창단이 맡았으며, 이어 다같이 묵도와 찬송(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드렸다.

기도는 이선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맡았고, 사회자가 로마서 8장 28절을 봉독했다. 이어 성민원 전 직원이 한국찬송가 102장 '주가 사용하시네'와 '성민의 노래'를 특송했으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주여'를 찬양했다.

설교는 고경환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고 목사는 자신이 어릴 적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지나온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는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다"며 "결국 힘든 일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성민원도 어려운 기간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며 "이

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연보기도와 연보 순서가 이어졌으며, 군포제일교회 마라나타 중창단이 '새벽 안개 이슬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찬양했다. 예배는 손평업 목사(성민원 법률고문)의 축사로 마무리됐다.

2부 기념식은 성민원 홍보팀장 서다은 집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성민원 법인 본부 영상제작팀이 제작한 '성민원 28주년 영상' 상영을 통해 기관의 사역을 소개했다. 이어 성민원 법인이사가 취지문을 낭독했다.

특별찬양은 북한이탈주민 찬양팀이 맡았으며, 김남식 박사(전 총신대학교 교수) '성경적 섬김 사역의 사례 연구-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 박사는 "성경적 섬김 사역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섬김은 재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라며 "성민원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앞으로도 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의 섬김 사역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섬김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고, 권영해 장로(대한민국통일건국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천 목사는 축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두 계명이다. 하나님은 군포제일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성민원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하셨다"며 "앞으로도 성민원이 하나님의



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뜻을 아름답게 이워가는 복지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격려사를 전한 권영해 장로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느냐가 중요하다. 가진 자 혹은 높은 자가 가지지 못한 자나 낮은 자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며 "성민원의 섬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과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후 성민원 이사장인 권태진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권 목사는 "많은 이들이 성민원이 베풀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그 동안 '아비목회·어미복지'라는 정신으로 사역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따라 섬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주요 참석자들이 성민원 설립 28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잘랐다. 마지막으로 박용규 장로(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가 광고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성민원 측은 "지난 28년 동안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며 복음과 복지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칼빈주의 신학과 기독교교육, 한국교회 신학 유산 조명

한국개혁신학회, 제161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개혁신학회(회장 이경직)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일원동교회(담임 권수경 목사)에서 제161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개혁신학 전통을 기반으로 신학과 사회, 역사, 교육을 연결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되며 학문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혁민 박사(북미주 KCBMC 사무총장)가 '이근삼 박사의 통합적 칼빈주의 이해를, 김풍룡 박사(수도국대학원대학교)가 '공화정적 파트너십의 회복: 레스 퍼블리카의 결속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기여를 발표했다. 또한 주성규 박사(양산교회)는 '칼빈의 성자의 영원출생 교리(구속언약과 삼위하나님의 세 의지)를, 홍성수 박사(고신대학교)는 '한국의 개화기 교육목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개혁신학의 역사적 흐름과 신학적 해석,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근삼 박사의 통합적 칼빈주의 이해와 한국교회 신학적 유산

권혁민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이근삼 박사(1923-2007)의 칼빈주의 이해가 구 프린스턴 신학과 신칼빈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그의 통합적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근삼의 칼빈주의 이해는 단순히 위클리프 전통이 강조하는 변증적 신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위클리프의 변증적 신학 전통뿐 아니라 웨스턴스터 신학회의 코넬리우스 반틸이 대표하는 화란 개혁주의 전통을 수용했으며, 동시에 아브라함 카이퍼 전통이 강조하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와 문화 개혁 사상을 함께 포용했다'고 했다.

권 박사는 "이러한 점에서 이근삼의 신학이 변증학적 전통과 개혁주의 문화관을 통합적으로 수용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삼 박사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고령신학교에서 박윤선, 한부선, 한상동 등의 영향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고든 칼리지와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웨스턴스터 신학교에서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에게 수학했다. 이후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해 1962년 대한민국 한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3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

1994년까지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및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다"며 "그의 미국과 네덜란드에서의 학문적 경험은 한국교회 안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과 변증학,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주의와 신칼빈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개혁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특히 "고려신학교를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학문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고신대학교 초대 총장을 맡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을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비전은 이후 한국교회에서 전개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 학문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권혁민 박사는 이근삼을 한국교회사에서 칼빈주의 신학의 수호자이자 문화 신학자로 평가했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의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칼빈주의 문화관을 기독교 대학을 통해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문화 변혁을 함께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칼빈주의적 기독교 대학 비전은 고신대학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했으며, 한국교회를 위한 신학자와 교육자를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권 박사는 "이러한 점에서 이근삼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승하려 했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화정 신학과 시민적 동반자 관계

김풍룡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공화정적 공동체와 시민적 결속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회 구성원 간의 동반자 관계와 결속을 공화국 유지의 핵심 요소로 보았던 키케로의 공화정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기독교적 틀 안에서 재구성했다"고 했다.

이러 "키케로의 정의 개념은 시민들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시민적 동반자 관계와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의와 시민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내면의 정의는 자신의 이익



한국개혁신학회 제161차 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기념 사진. ©한국개혁신학회

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정의와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면적 정의는 단순한 개인적 덕목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연대와 공공의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됐다"고 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서 강해'에서 사랑을 중력에 비유하며, 사랑이 사람들을 도우며 필요한 이웃과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끈다"며 "이러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내면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도록 이끌며, 올바르게 질서 잡힌 시민적 동반자 관계와 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다.

◆칼빈의 성자의 영원출생 교리와 삼위일체 신학 논의

주성규 박사는 칼빈의 성자의 영원출생 교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한 쟁점을 분석했다.

그는 "엘리스가 니케아 신조의 표현인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을 부경하면서 칼빈이 어거스틴의 성자의 자연적 출생 개념을 제거하고 위격적 출생만을 주장했다고 해석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주 박사는 "칼빈의 원문과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칼빈은

젠틸리스의 종속론과 세르베투스의 양태론적 종속론을 모두 배격하면서 성자의 출생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인정했다"고 했다.

이러 "그 두 측면은 성부로부터의 본질적 전달과 위격적 출생이다. 주 박사는 칼빈이 이 두 측면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삼위일체 신학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별코프가 제시한 세 의지 가능성과 어거스틴의 니케아 용법 차용이 칼빈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며 "반면 엘리스는 칼빈을 바르트적 틀 안에서 해석하면서 일정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주 박사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위격의 본질적 하나됨과 구별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신학적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방법론이 존재할 경우 세 위격의 외적 사역과 구별되는 의지 역시 인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하나의 신적 의지로 귀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성부는 기원자로서, 성자는 실행자로서, 성령은 적용자로서 역할을 나누며, 이는 세 위격 사이의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구속언약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화기 교육과 기독교교육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홍성수 박사는 한국 개화기 교육의 목적과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개화기 교육을 통한 근대화의 이상이 '새사람, 새시대, 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개화기 당시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이상을 안정

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러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화기는 자율과 타율이 동시에 작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조선은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완전히 주체적인 근대화를 이루기 어려웠지만, 유학과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실학 사상을 발전시키며 개화 사상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자율적 흐름도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며 "조선 후기 정부는 근대교육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하면서 학교 설립과 국민 교육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는 "교육입국조서에서 고종은 근대교육의 방향을 덕양, 체양, 지양의 삼육론으로 제시하며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며 "이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낡은 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개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러 "이와 함께 선교사들과 교회는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해 개화기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독교 선교부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도였지만,

기독교학교는 한국인들에게 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이러한 기독교학교 교육이 개화기 교육의 이상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한국 근대화의 이상은 크게 위축됐으며, 1930년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기독교학교 교육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변질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개화기 교육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선교사와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교육 활동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홍 박사는 "이들이 모두 새 시대와 새 사람,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된 이상을 공유했으며, 구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고 했다.

또한 "개화기 교육은 정부에게는 교육입국의 정책이었고 백성들에게는 구국과 번영의 길로 받아들여졌으며, 선교사들에게는 복음 전도와 함께 조선 사회를 섬기는 방식으로 이해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의 강평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이승구·박응규 교수, 제6회 야립대상 수상자 선정

한국신학회 야립대상위원회(위원장 정상윤)는 제6회 야립대상 수상자로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와 박응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승구 박응규 교수 ©한국신학회

야립대상은 평생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 야립 고영달 선생(1921~1991)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상이다. 격년으로 수여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그동안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이상규 고신대 교수 등이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제6회 시상식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 두 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된다.

이번 시상식은 (주)금비와 (주)삼화왕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노형구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SWP 한국동서발전주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서명운동 출범

“기도와 행동으로 세 선교사 귀환 이뤄내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이 미주 한인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청원 서명운동 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출범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교협과 성서화운동본부, KCMUSA 등이 함께 주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의 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으며,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준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각각 체포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선교사는 충현선교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알려졌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다음 해 5월 30일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 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도 2015년 6월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으며,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윤권 목사는 이번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미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 목사는 “오늘 시작되는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향한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세 분의 선교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토마스 맹 기자

사님이 하루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 대표로 참석한 김정삼 집사는 “저는 북한에 억류된 지 12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김정욱 선교사의 행”이라며 “내 동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오늘 시작되는 한 사람의 서명과 기도가 묶인 사슬을 풀어 선교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는다. 봄이 되면 얼어 있던 물이 녹아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하루빨리 풀려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저 역시 북한에서 1년 넘게 독방에 갇혀 있었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여러분이 기도



참석자들이 서명하는 모습. ©토마스 맹 기자

하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선교사들이 석방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라며 “이 운동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문제다. 마음을 모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 선교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는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을 사랑하며 국수 공장을 세워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분”이라며 “김국기 선교사와 최준길 선교사 역시 행동으로 북한을 사랑했던 분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KCMUSA도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결의문’을 통해 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미주 한인사회와 교회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서명운동 진행 방식을 설명하며 “오프라인 서명은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서명은 4월 중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아진 서명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북한대표부, 평화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토마스 맹 기자

LA사랑의교회 6기 임직감사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서야”

LA사랑의교회가 지난 1일 주일 제6기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길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임직감사예배에서는 집례를 맡은 김기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설교는 박한성 목사(LA열린문교회)가 맡아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Living Worthy of the Call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교회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안식처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사업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 관리되고 인도함을 받는다.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 일꾼의 자세에 대해 “교회가 많은 사역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금식하고 봉사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교회 일꾼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며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시간을 움직이듯, 교회도 목회자의



임직자들이 인수를 받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비전과 방향을 따라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오늘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자리”라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섬김의 자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한다. 그 차이는 봉사와 섬김의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다. 마지막으로 “오늘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이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교우와 임직자 서약, 안수 및 공포, 임직패와 꽃다발 증정, 임직자 대표 인사 등이 이어졌으며, 축사와 권면의 순서도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LOVE, RESPECT, TOGETHER.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세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c AEKYUNG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세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뱅크-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21세기 독립운동가 양성 프로젝트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단장 박기태)와 미주 한인단체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제니퍼 최)이 함께 ‘글로벌 대한인국민회 홍보대사’를 양성한다.

뱅크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1910년 국권 피탈의 절망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단체 ‘대한인국민회’의 숭고한 유산을 21세기 청년들이

계승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뱅크와 재단 측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미주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번 일은 이를 이행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뱅크 측은 “홍보대사는 미주 지역 한인 청소년을 우선으로 선발하지만, 활동을



뱅크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함께 ‘글로벌 대한인국민회 홍보대사’를 양성한다. ©주최 측 제공

희망하는 미주 한국학교 교사와 동포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보대사는 신청을 받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美복음주의 지도자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 간구

3월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열렸다. 이날 기도 모임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안수기도를 했다. 백악관이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플루트 데스크 뒤에 앉았고 참석자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기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모임은 백악관 신앙사무소(White House Faith Office) 책임자인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Cain) 목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앙 조언자로, 행정부 내에서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기도 모임에는 델러스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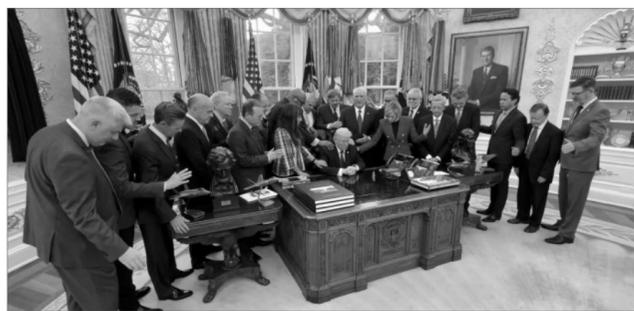
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를 비롯해 신앙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회장 랄프 리드(Ralph Reed), 가족연구협회(Family Research Council-FRC) 전 회장 게리 바우어(Gary Bauer) 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는 플로리다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Christ Fellowship Church)의 원로인 톰 멀린스(Tom Mullins) 목사가 인도했다. 멀린스 목사는 기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기를 구한다. 또한 미국의 군인들과 모든 장병들을 지켜 주시고, 이 나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안전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나라를 이끌어 갈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인도하

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로 다시 바로 서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멀린스 목사는 “지금과 같은 긴장과 갈등의 시기에 미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위에 서서 지도력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달라”며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인 네이트 샤텔라인(Nate Schatzline)은 자신의 X 계정에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라며 “미국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 부흥과 종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교회를 동원하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 약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모여 어깨에 손을 얹고 대통령과 미국,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보좌관 X

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신앙 공동체와 태아, 다음 세대, 그리고 종교 자유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라며 “대통령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악관 신앙사무소

를 이끌며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온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신앙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회장 랄프 리드(Ralph Reed)도 X에 글을 올려 “이런 테러 정권을 공격

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에 감사한다”라며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우리 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님께서 이런 국민에게 승리와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회의(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NHCLC) 회장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역시 X를 통해 기도회 참석 사실을 전했다. 로드리게스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누렸다”라며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혜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지도자에게는 겸손과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위기 처한 노인, 한인 공무원의 극진한 보살핌에 위기 벗어나

지난 4월, 위기에 처한 한인 노인을 극진한 정성으로 보살핀 공무원의 이야기가 한인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션아가페 이창우 부회장에 따르면 그는 4월 오후 2시 30분경 애틀랜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사로부터 긴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본부장님,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항인데 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한 노인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던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면서 공항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노인을 돕기 위해 성 영사는 직접 공항으로 달려 나갔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공항에 있던 미션 아가페 이은자 부회장이 현장에 합류해 노인을 살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노인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장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소식을 들은 미션 아가페 제임스 송 회장은 즉시 호텔에 연락해 2주 치 숙박비를 결제했다. 이창우 부회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휠체어를 들고 호텔로 향했다. 성 영사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노인을 태워 직접 호텔로 이동했다.



위기에 처했던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SNS

호텔 로비에 도착해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차 안에는 지독한 악취가 가득했다. 긴 비행과 몸 상태로 인해 노인이 차 안에서 실례를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영사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어르신을 안심시키며 무거운 몸을 직접 들어 휠체어로 옮겼다.

호텔 방에 도착한 뒤, 성 영사는 젖은 수건을 꺼내 노인의 몸을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다. “어르신, 아쪽으로 조금만 돌려 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정한 말로 노인을 안심시키며 젖은 기저귀와 바지를 갈아입히는 그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간호사, 아니 자상한 아들 같았다고 한다.

이창우 부회장은 “미션 아가페에서 16년 동안 봉사를 해왔지만, 생면부지의 민원인을 위해 이토록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공직자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옆에서 돕던 나조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노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였다.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변 줄에 의지한 채 상차까지 입은 어르신은 호텔에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결국 911에 도움을 요청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성 영사는 3년 임기로 파견된 경찰 영사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적인 업무만 수행하다 돌아갈 수도 있었을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도 교도소를 방문하며 소외된 한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고민들을 지키고 돕는 공직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한인사회에 큰 위안이자 희망이다. 앤더슨 김 기자

은퇴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인생 2막’... 한미장학재단에 11만 달러 기탁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회장 이조엔)가 최근 은퇴 시니어 세 가정으로부터 총 11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평생 전문직에 종사하며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들이 후세 교육을 위해 정성을 모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 송대광·김순희 부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학생’들을 위해 2년 연속 \$30,000 쾌척

80년대 도미한 송대광·김순희 부부는 AT&T와 Verizon에서 30여 년간 통신 분야 전문 엔지니어로 근무한 베테랑이다. 은퇴 후 애틀랜타로 이주한 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매년 \$30,000(총 6만 달러)를 기탁하며 변함없는 후배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두분은 신체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제약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의지의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

■ 정상일·배수정 부부: “후학들의 꿈을 위해” 5만 달러 기부
가톨릭 의대 졸업 후 1973년 위스콘신으로 이주해 마취과 전문의로 평생 인술을 펼친 정상일·배수정 부부는 5만 달러를 후원했다. 10여년전에 은퇴한후에 플로리다를 거쳐 4년 전 애틀랜타에 정착한 부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후

세들이 미국 땅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 박종신·이송향 부부: 미래 주역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 3만 달러 전달

삼성 근무 중 1980년 이주한 박종신·이송향 부부는 일리노이주 록포드의 항공우주 기업 ‘우드워드(Woodward)’에서 35년간 연료 엔진 전문 엔지니어로 헌신했다. 2017년 은퇴 후 애틀랜타에 정착한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고루 전달되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달러를 기탁했다.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약 8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500달러, 대학생 이상 2,500달러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www.kasf.org에서 볼 수 있다. 장학생 신청은 4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는 3월 21일 장학기금 마련 음악회, 5월 3일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와 9월 중 장학금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후원에 대한 문의는 회장 이조엔: yj.joanne@gmail.com, 후원위원장 알렉시스 산: alshin63@gmail.com, 재무이사 이영진: youngjinlee9999@gmail.com에 게 하면 된다. 앤더슨 김 기자



송대광, 김순희 부부



정상일, 배수정 부부



박종신, 이송향 부부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일터교회는 지역교회의 중심 이동 아닌 ‘중심 확장’, 상호 보완 관계”

잡뉴스솔로몬서치 대표·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 김동연 목사 인터뷰 (下)

일터 예배드리며 기업은 ‘신뢰와 책임 중심구조’로, 직원들의 신앙은 ‘일상 속 신앙 통합’으로 바뀌어

“일터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는 ‘일터 교회가 지역교회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에서 옵니다. 그러나 핵심은, 중심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뿌리라면, 일상의 삶은 열매입니다. 뿌리 없이 열매는 없고, 열매 없는 뿌리는 생명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현상이 예배라는 선언은 지역교회를 세상 속으로 확장하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기업 대표이자 신학교 교수, 저술가로 활동 중인 김동연 목사(잡뉴스솔로몬서치 대표, 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7년간 기업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터 교회’ 확산에 앞장서 온 일터 사역의 선구자이다. 김 목사가 주중 5일에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터 교회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최근 신간 ‘일터교회 영역 주권’을 펴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 일반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는 새로운 돌파구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과 ‘일터 교회’의 중요성,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대해 김 목사와 최근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17년간 기업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일터교회’를 운영해 오셨습니까. 일터 예배가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신앙, 조직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저희 잡뉴스솔로몬서치의 솔로몬일터교회 사례를 보면, 일터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기업 문화, 직원 신앙, 조직 운영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업 문화의 변화’, ‘직원 신앙의 성숙’, ‘의사결정 및 조직 운영의 재정렬’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첫 번째는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경쟁 중심에서 책임 중심 문화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설립 초기에는 성과 압박, 상명 하복 구조,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에 드려지

는 일터 예배에서 ‘노동의 존엄성’, ‘창지기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로는, 실수 보고가 숨김없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문제 발생 시 “누가 잘못했나”보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팀장 회의에서도 기도로 시작하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개선이 아니라, ‘두려움 기반 조직’이 ‘신뢰 기반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가 완화되었습니다. 일터 예배에서 자주 다룬 주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권위’라는 원리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②두 번째 ‘공동체 직원 신앙의 변화’입니다. 먼저 주일 신앙에서 일상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된 메시지는 ‘내가 일하는 손끝의 움직임이 보고서 작성도 예배다’, ‘가래저 응대도 예배다’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영업팀 직원이 허위 과장 계약을 거절하고, 재무 담당자가 탈세성 편법 제안을 반대한 일, 팀 프로젝트 실패 후 서로 비난하지 않고 공동 책임을 선언한 일 등이 있습니다. 직원 간증에서 자주 나온 표현은 “회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③세 번째, ‘조직 운영의 변화’입니다. 먼저, 인사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일터 예배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직원을 단순 자원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 변화로는, 구조조정 시 일방적 해고 대신 상담을 통한 전환 배치 우선, 출산과 육아 배려 제도 확대, 재택으로 근무 전환,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 예식 도입 등입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 우선’ 전략이 강했다면, 일터 예배 이후 ‘정직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사례로는 단기 수익은 높지만, 윤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를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손실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평판과 신뢰도는 상승했습니다.

결국 일터 예배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는 ‘두 얼굴의 삶’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

다. 17년간 솔로몬일터교회를 운영하며 경험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신앙과 직업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삶’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내가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온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Q. ‘일터 교회 영역 주권’ 책에서 ‘20만 개 일터 교회’ 비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일터 교회 영역 주권’에서 말하는 80만 개 법인기업 중 4분의 1인 ‘20만 개 일터 교회’ 비전은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를 신앙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국교회는 목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기독교 경영인은 신앙적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양측 모두 제도-훈련-신학적 토대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을 살펴보면, ‘교회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지역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보내 받은 공동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교회 영역을 담당하지만, 성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를 구현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주일 중심 → 주중 파송 중심’, ‘프로그램 중심 → 소명 중심’, ‘교회 성장 지표 → 사회 영향 지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직업 소명 신학’의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헌신 = 교회 봉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20만 개 일터 교회가 가능하려면 ‘직업이 곧 부르심(Calling)’이라는 신학이 설교와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직업별 소명 세미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20,000여 가지 직업을 아우르는 산업군별 신앙 포럼이 활성화되고, 평신도의 ‘일터 교회’일터 선교사역에 필요한 일터 신학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인식 변화’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성공을 현금 증가로만 보지 않고, 성도의 기업 운영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목회 권위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경영인이 갖춰야 할 조건은, 먼저 기업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또 기독교 경영인은 ‘이윤



김동연 목사는 “20만 개 ‘일터 교회’는 단순한 교회 수 증가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론의 재정립, 직업관의 재구성, 기업 윤리의 신학화, 사회 구조의 점진적 변혁을 포함하는 총체적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목사 제공

구조의 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경영인은 ‘개인 경건과 리더십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실패는 구조보다 리더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권위적 경영, 성경 공부는 하지만 불공정 계약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20만 일터 교회는 공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20만 일터 교회’가 실현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기반을 공동으로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일터 교회 네트워크 형성상과 법적노동법적 가이드라인 정립, 산업별 윤리 기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기반입니다. ‘변영신학’과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0만 개 일터 교회는 ‘잘되던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잘되던 안 되던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적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는 단기 캠페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 신학교 커리큘럼 교재로의 변화’, ‘다음 세대 직업 소명 교육’, ‘청년 창업 신학 멘토링’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일터 교회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만 개 일터 교회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회는 파송 공동체가 되고, 경영인은 창지기 리더가 되며, 신앙은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전환’입니다.” 결국 ‘20만 개 일터 교회’는 단순한 교회 수 증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론의 재정립’, ‘직업관의 재구성’, ‘기업 윤리의 신학화’, ‘사회 구조의 점진적 변혁’을 포함한

총체적 비전입니다. 이 4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Q. ‘교회는 주일에만 모이는 장소’라는 인식을 넘어, 삶의 모든 현상이 예배의 자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기존 지역교회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려면 어떤 신학적, 목회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삶의 모든 현상이 예배라는 관점은 주일 예배를 약화시키려는 선언이 아니라, 예배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관점이 기존 지역교회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려면 다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①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신학적 균형’으로, ‘예배의 확장 vs 예배의 대체’ 문제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일터 예배는 공예배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통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씀 선포와 성례전(세례, 성찬)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규정했습니다. 예배의 두 차원을 조화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예배가 공동체 중심적이고, 성례전과 말씀이 중심이라면, 삶의 예배는 소명적 윤리적 실천입니다. 이 두 차원을 대립시키면 충돌이 발생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로 이해하면 건강해집니다.

②두 번째, ‘교회론적 균형을 위해 제도 교회와 영역 교회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 영역을, 기업은 경제 영역을, 가정은 가정 영역을 각각 하나님 앞

에서 책임집니다. 따라서 일터 교회는 지역교회의 ‘지점’이 아니라, 성도가 흠어져 존재하는 ‘신앙의 실천 영역’입니다. 지역교회와 일터 교회의 상생을 위해 파송 구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를 일터로 파송하며, 일터 교회는 다시 지역교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일터 교회는 독립 교회도 아니며, 파송된 공동체의 실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③세 번째, ‘목회적 균형을 위해 권위와 돌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터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경우, ‘누가 영적 권위를 갖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인가? 기업 대표인가? 일터 리더인가?’ 목회 권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결 원칙은, ‘상례 집례는 지역교회 관할’, ‘교리 교육은 지역교회와 협력’, 일터 모임은 ‘말씀 적용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유화도 방지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이 “교회는 굴이 안 가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강조해야 할 균형은 ‘흠여짐은 모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모였지만, 동시에 사도적 가르침과 공동체적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균형은 ‘중심 이동이 아니라 중심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모든 현상이 예배라는 선언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확장하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상생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균형으로 ‘공예배의 고유성 유지’, ‘일상 예배의 정당성 인정’, ‘권위의 경계 설정’, ‘파송 구조 확립’이라는 4개의 축이 분명할 때, 충돌이 아니라 상호 강화가 가능합니다. <끝>

이희희 기자

월드비전은 모든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美 USCIRF, 터키 외국인 기독교인 추방 문제 '특별감시' 권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터키에서 추방된 외국인 기독교인 문제에 대해 유럽의회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USCIRF는 최근 터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추방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유럽의회도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터키에서는 200명이 넘는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추방됐으며, 이로 인해 약 35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 대상자 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터키에서 사역해 온 안수 목회

자들로, 이들의 부재로 다수의 개신교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잃은 상태다.

지난달 유럽인권재판소(ECHR)은 터키 입국이 금지된 기독교인 20건의 사건을 터키 정부에 통보했다. 이어 유럽의회는 "입증되지 않은 국가안보상의 구실과 적법 절차 없는 방식으로 외국인 기독교인을 추방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USCIRF도 터키를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특별 감시 대상국(Special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빅키 하슬레 USCIRF 위원장은 "터키



©Unsplash/Turkey

가 외국 출신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자의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고 예배 모임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며 "거주 자격

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행정부는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간 회담에서 형성된 모멘텀을 유지하고, 터키의 종교 자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에 대한 억압적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방 조치를 당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국제 인권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일부 사역자들이 수십 년간 터키

에 거주해 왔음에도 재입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켈시 조르지 ADF 인터내셔널 옹호국장은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기본권을 계속해서 수호하고, 터키 정부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표적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길 바란다"며 "평화롭게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낙인찍혀 삶의 터전에서 추방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며, 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매경 기자

“낙태·조력자살·LGBT 담론, 종교자유 제한하는 ‘정중한 박해’”

일본 도쿄 가톨릭 대주교가 낙태, 조력자살, 성소수자(LGBT) 이슈와 관련한 현대적 '권리 담론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정중한 박해(polite persecution)"라고 경고했다.

도쿄 가톨릭 대교구장인 타치시오 이소아 키구치(Tarcisio Isao Kikuchi) 추기경은 최근 크루스 나우(Crux Now)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행돼 온 정교분리 원칙이 때로는 종교가 공격 영역에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적으로 훼손하는 사안들에 대해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낙태, 핵무기, 이주민 처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추기경은 "이 나라에서 종교는 도덕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울

타리 안에 머무는 때만 무해하고 관용은 존재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자선 활동에서조차 신앙적 동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인터내셔널리스(Caritas Internationalis)의 총재이기도 한 그는 "때로는 지역 사회의 긴장을 피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명시적인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조언을 받는다"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카리타스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의 활동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적 이해와 인간 생명의 신성함, 윤리적 가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소수 종교로 남아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만이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다.

이매경 기자



©pixabay

기독교 단체, 영 교육장관 '남학생 드레스 허용' 발언에 반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의 드레스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영국 기독교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기독교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최근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학교가 초등학교생들에게 성별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최근 학교의 사회적 성전환(social transition)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와의 협의 및 필요 시 임상적 조언 검토 등 적절한 절차 없이 사회적 성전환

조치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적 성전환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협의 중인 이 지침은 화장실과 탈의실 등 단일 성별 시설을 실제로 단일 성별로 유지하도록 한 점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조건 아래 성전환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독교 및 친가정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당 소속 교육부 장관이자 여성 평등부 장관인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은 L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원한다면 드레스를 입을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학교는 초등학교생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성별을 바꾸도록 장려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또는 여자로 창조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이 나라의 학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침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했다.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학생 대응 방식은 수년간 논란이 돼 왔다. 2022년

영국 정부는 교육부의 트랜스젠더 지지 정책에 법적 대응을 제기한 기독교인 학부모 나이절 로우와 셸리 로우 부부와 합의했다.

이 사건은 기독교 법률센터(CLO)의 지원을 받아 2017년 시작했다. 당시 로우 부부는 두 아들이 재학 중이던 영국 성공회 초등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택한 성별로 등교하도록 허용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합의에 따라 로우 부부는 소송 비용 2만2천 파운드를 지급받았으며, 교육부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공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매경 기자

미 플로리다 침례교회서 예정된 보수단체 투어 행사 돌연 취소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예정됐던 보수단체 행사 투어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의 신앙 부문 투어가 당초 2월 말 퍼스트 침례교회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취소됐다.

이번 행사는 TPUSA 창립자 찰리 커크의 미망인이자 TPUSA 최고경영자인 에리카 커크가 이끄는 전국 순회 복음 집회 '메이크 헤븐 크라우드드 투어(Make Heaven Crowded Tour)'의 일환이었다.

TPUSA 신앙 부문 목회 관계 책임자인 짐 무어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행사를 "잊지 못할" "대규모 집회"라고 홍보하며 지역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2월 25일 오후 6시 30분 올랜도에서 예배의 밤이 열릴 것"이라며 "역대급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투어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올랜도 일정이 삭제됐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던 행사 안내 링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TPUSA 신앙 부문 수석 책임자인 루카스 마일스 목사는 "추가 검토 결과 이번 일정은 양측 모두에 최적인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교



고 찰리 커크 대표(터닝포인트 USA). © 빌드업코리아 유튜브 캡처

회와의 논의에 감사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어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퍼스트 침례교회 올랜도 담임목사 데이비드 어스는 2월 15일 설교에서

투어 주최 측이 몇 달 전 교회 측에 행사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에는 모든 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행사가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 특히 정치나 정당과 관련된다면 교회에서 개최하기 어렵지만, 예수 중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주최 측이 예수 중심 행사를 보장하고 연사 명단 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사 말미에 세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행사 참석과 전도를 독려하며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매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파키스탄 반미 시위 격화 속 교회 보안 강화... 기독교 보호 조치 확대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 여파로 파키스탄 반미 시위 확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반미 시위가 격화되면서 교회와 선교학교 등 기독교 기관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된 반미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한 가운데, 파키스탄 당국은 주요 기독교 시설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과 준군사 조직은 라호르,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등 주요 도시의 교회와 선교학교, 기독교 기관 주변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 이는 중동 정세에 대한 분노가 기독교 공동체나 사방과 관련된 기관을 겨냥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보안 강화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촉발된 시위와 맞물려 시행됐다. 해당 사건 이후 파키스탄 여러 도시에서는 친이란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

역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카라치 미 영사관 충돌 등 시위 격화... 사망자 발생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서는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 단지로 진입하려 하면서 큰 충돌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영사관 외곽 경계를 넘어 진입을 시도하자 미국 해병대 경비 인력이 발포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이와 함께 이슬라마바드 외교 구역과 라호르의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서도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이어지며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충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 모신 나크베는 평화적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강조하면서도 폭력과 파괴 행위는 결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폭력 시위 이후, 파키스탄 카라치의 미국 영사관 밖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 당국은 충돌로 여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뒤 전국의 외교 공관과 기독교 기관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Youtube Screenshot / Associated Press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각 지방 정부는 대규모 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민감 지역에 레인저스와 군 병력을 배치했다.

◆기독교 시설 보안 강화... 교회와 선교학교 경계

파키스탄의 기독교 공동체는 인구 약 2억4천만 명 가운데 약 1.37%를 차지하는

종교적 소수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긴장이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때 기독교 공동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국은 주요 교회와 선교학교, 기독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 조치를 강화했다.

라호르에서는 주요 교회와 선교 교육기관, 기독교 밀집 지역 주변에 추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이슬라마바드에서도 교회 등 기관이 위치한 F-6와 G-8 구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보안 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미국 장로교가 후원하는 역사적인 교육기관인 포먼 크리스천 칼리지(Forman Christian College University)는 보안 우려로 인해 이틀 동안 캠퍼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방 당국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교육 기관의 사명을 지속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 평화 호소... 소수 중

교 공동체 보호 강조

파키스탄 기독교 지도자들은 긴장 고조 속에서 평화와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여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에서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교회 라호르 교구의 나딕 캄란 주교는 국가의 안정과 모든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무고한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카라치 영사관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라호르와 카라치 영사관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의 출국을 허용하고 파키스탄 내 미국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 "지정학적 갈등 속 소수 종교 공동체 위협 증가"

펜타곤 주의회 의원이자 전 인관-소수자 담당 장관을 지낸 예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지정학적 갈등이 종교적 감정과 결합될 경우 소수 종교 공동체가 예상치 못

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 주변에 신속하게 보안 병력이 배치된 것은 정부가 이러한 위협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갈등이 파키스탄 내 시위로 확산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반미 정서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빠른 동원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 관계자들은 현재 지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회와 학교, 주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개발 전문가 "아딜 레흐마트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역시 같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중동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쿠바 위기 심화... 식량·전력 부족 속 교회 역할 주목

경제난·정전 속 교회, 지역사회 지원

쿠바가 식량과 의약품 부족, 장시간 정전,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교회와 종교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희망과 연대를 전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여러 언론과 사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쿠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쿠바 사회는 기본적인 생활 물자의 부족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교 공동체 또한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선교 및 인권 관련 소식들을 전하는 매체 미션 네트워크 뉴스(Mission Network News)에 따르면, 캐나다 순교자의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

Canada)의 국제 부대표 듀안 프리젠(Duane Friesen)은 현재 쿠바 주민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전기 없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지역에서 하루에 약 한 시간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휴대전화나 기본 전자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제한된 전력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젠은 "많은 사람들이 '1년 뒤 우리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쿠바 사회에 퍼져 있는 깊은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설명했다.

CDI는 쿠바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 상승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페리오디코 쿠바노(Periodico Cubano)에 따르면 수도 아바나의 한 소규모 음식 판매대에서 가장 저렴한 식사 한 끼 가격은 약 500 쿠바 페소(CUP)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약 1달러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쿠바의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으로 평가된다. 현재 쿠바 국영 부문에서의

월 최저임금은 약 2,100 쿠바 페소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 한 끼 식사가 한 달 최저임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가정이 기본적인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소득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쿠바에서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 또한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현재 쿠바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어려운 경제적 시기 중 하나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료 부족, 기존 경제 협력 파트너의 변화, 외부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CDI는 쿠바의 위기는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정전과 기본 공공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지

고 있다. 특히 2024년 이후 쿠바에서는 식량과 전력 공급 문제, 시민 자유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위와 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쿠바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미국은 쿠바를 포함한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외교 환경에서도 쿠바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남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쿠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젠은 쿠바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지역 교회는 식량과 의약품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종교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승연 기자

"1억 명 이상 아동 직·간접 영향, 즉각적 보호 필요"

세이브더칠드런, 중동 분쟁 아동 피해 확대 경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으로 인해 1억 명이 넘는 아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아동 보호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분쟁 상황에서 아동이 가장 취약한 피해 계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과 무력 충돌로 피해 실수에 머무르거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생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공습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이들이 잠들 수 있도록 백색소음을 틀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중동 분쟁이 최소 15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 200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 아동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한 사상자 발생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교육과 건강, 심리적 안정 등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전역에서는 다수의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가정이 공습 위험을 피해 실내에 머무르거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생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공습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이들이 잠들 수 있도록 백색소음을 틀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I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대통령 “중동 위기 장기화 대비”… 금융·에너지 대응책 지시

중동 정세 불안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 종합적인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

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시장 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공급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

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합법,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용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후보 미등록… 국힘 노선 갈등 격화

‘절음’ 논쟁 속 당내 충돌 확산… 의원총회서 당 노선 두고 격론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의 노선 변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

는 가운데,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이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진행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전날 오후 10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당의 노선 정상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이른바 ‘절음’ 노선을

언급하며 당이 중도 확장 전략을 통해 정치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 미등록 결정이 당 지도부와와의 노선 갈등 속에서 나온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오세훈 후보 미등록 두고 국민의힘 내부 해석 분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 시장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회의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을 두고 당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접해 온 인물인 만큼 현재 당의 방향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전달하려는 항의의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운영과 관련해 “윤이계인과 결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도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윤이계인을 지지하는 노선은 중도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지층 이탈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 노선 변화 요구와 지도부 비판 이어져

당내 일부 인사들은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이 당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불안이 나가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성찰하고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짊어 명쾌한 선을 긋는 후속 조치가 당 명의로 발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이 당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의 불출마 의사 역시 현재 당의 노선 갈등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당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거나 최소한 방관하지 않았다면 현재 지도부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전 선언’ 요구… 당내 분열 우려도

반면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내부 갈등을 중단하자는 이른바 ‘휴전 선언’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윤이계인, 내란, 극우, 친윤, 절음, 친한, 당권 등 자극적인 표현은 결국 국보수 진영을 갈라놓는 분열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의 분열을 멈추고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전선은 당내 인물 간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가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행사 지원 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시스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권 사이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려면 당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부 징계 논란까지 겹치며 당내 긴장 고조

당 지도부의 징계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장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내 비판 세력과 오세훈 시장 등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가혹하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당내에서 배신자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국 기자

구급약인 활명수

반고판이의 기기충전 손기정 민중운동장 선수 우승 축하
건국헌정 10주년 기념 축하

水命活

수명활

活命水를
服用하십시오

牛島男兒의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느耐久
力에根源은 오직健全한胃腸에서
胚胎된다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 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야

地帶五町泉和府城京 房藥和同 九一七二光新通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중동 사태에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코스피 급락·환율 1500원 근접

중동 리스크에 금융시장 흔들… 국내 증시 급락 원달러 환율 상승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코스피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을 위협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9.50포인트(5.72%) 하락한 5265.37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다. 오전 10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11% 하락한 5132.07을 기록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04% 하락하며 17만원 아래로 내려왔고 SK하

이닉스는 11.58% 떨어진 81만7000원에 거래됐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19포인트(5.04%) 하락한 1096.28에 개장한 뒤 장중 107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국내 증시는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급격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선에 근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8.6원에 출발해 오전 10시22분 기준 1498.6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이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WTI 4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70% 상승한 배럴당 107.90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111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 충돌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증시도 함께 흔들렸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5만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빗썸에서 약 9800만원 수준에 거래되며 등락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갈등이 단기간에 완화되면 일시적인 심리 위축에 그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내래 기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새 최고지도자 선출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승계 본격화

전문가회의 결정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확정... 트럼프 “승인 없는 지도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발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고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이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37년 동안 이란의 신정 체제를 이끌어온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권력 승계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결정



되면서 이란 정치 권력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직에 공식 선출됐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군 통수권과 종교 권위를 동시에 갖는 국가 최고 권력 자로, 이란 정치 체제의 정점에 위치하는 자리다. 최고지도자는 군과 사법부, 국영 방송, 혁명수비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기존 최고지도자였던 아이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오랜 기간 이란 권력 핵심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평가돼 왔다. 이란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후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진행된 권력 승계 절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9년 이란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약 37년 동안 이란 신정 체제의 최고 권력자로 군

림하며 국가의 정치군사-종교 권력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행사해 왔다.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전문가 회의로 넘어갔다.

전문가회의는 이날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으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필요할 경우 해임할 권한을 가진 기구다. 전문가회의의 최종 결정을 통해 차기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날 전문가회의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면서 알리 하

메네이 사망 이후 이어졌던 이란 권력 승계 문제는 일단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승인 없는 이란 지도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발언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인선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도자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원한다”

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란 지도부 교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향후 이란의 권력 구조와 대외 정책, 중동 지역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장대한 분노 작전’과 이란 사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나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라이언 헬펜 바인(사진)의 기고글인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최종 대응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과제(Operation Epic Fury: Trump's Iran reckoning and what Christians should pray for)’를 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라이언 헬펜바인(Ryan Helfenbein)은 스탠딩 포 프리덤 센터(Standing for Freedom Center)의 사무총장이며,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참여 담당 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지난 토요일(7일) 이른 아침,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군이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함께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전역의 수백 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최소 9개의 이란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광범위한 군사행동으로, 이란 지도부 거주지와 정부 부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핵 관련 시설, 해군 자산 등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되었다.

같은 날 늦게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발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공습 사

실을 알리며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 주요 도시와 이란 일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의 결정을 환영하며 축하 집회를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란 정권에게는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협상을 거부했다.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번 작전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정밀한 공중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미군 장비 네 명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인근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란의 이러한 대응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란 정부에 핵무기 개발 야욕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 협상 의지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결국 2025년 6월 22일 시작된 이번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하메네이의 죽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란이 처음부터 진정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메네이의 죽음 자체는 그리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종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정 체제다. 이 체제는 이슬람 종말론적 세계관, 즉 세 세계적 이슬람 통치 질서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이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체제를 움직여 온 핵심 사상이었다.

하메네이와 이란의 종교 지도부가 핵무기를 추구한 이유는 미국의 위협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신명 체계와 종교적 세계관 자체가 궁극적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적 지원, 일시적 핵 개발 중단 합의만으로는 이란의 핵 야욕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자신들이 숨겨진 이맘(마흐디)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체제가 서방 국가의 외교적 압력 때문에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세계관이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영적 확신에 의해 움직일 때, 그 같

은 역시 단순한 정치적 해결만으로는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유화 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지난 수십 년의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 전략은 중동 지역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국가 재건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미군 희생과 막대한 비용을 치렀지만 장기적 안정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JCPOA)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핵 활동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상당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란에 풀렸고, 그 일부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핵 활동 검증 체계 역시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미국 언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비판적 검증 없이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이 합의는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잠시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핵 활동 제한 조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료되었고, 이후 이란은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했다.

그 결과 세계는 핵무기를 보유한 이슬람 신정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 서게 되었다. 유화 정책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이 더 많은 시간과 기술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트럼프의 정책 현실주의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작전은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 끝이 없는 전쟁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전쟁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불필요한 교전 규칙도 없고, 국가 재건 프로젝트도 없으며, 민주주의의 수출 실험도 없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며, 미국인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그는 신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도 아니다. 그는 미국의 희생을 통해 다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압도적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접근을 선호한다. 이는 냉전 말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트럼프가 밝힌 목표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 ▲이란의 미사

일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것 ▲이란이 지원받는 테러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 ▲이란 해군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

또한 이 작전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BRICS 국가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4. 지금은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군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50년 가까이 이슬람 신정 체제 아래에서 고통을 겪어 온 이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란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악한 정권이 더 이상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정의 역시 필요하다. 이는 성경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할 때 이루어진다.

오랜 세월 동안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이러한 활동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분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약해진 서구 교회가 세계 교회에 미치는 여섯 가지 영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는 리처드 하웰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서구 기독교는 '약화된 서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모습(6 ways a weak Western Church hurts the global Church)'을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리처드 하웰 박사는 케일럽 인스티튜트(Caleb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총장이다. 그는 1977년에 설립된 하나님의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of God)의 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야기는 단순히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더 시급한 현실은 이것이다. 서구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해체되고 약화되는 현상은 결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겪는 위기라는 점이다.

서구 기독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약해질 때 그 영향은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결국 그 결과는 다수 세계(Majority World) 교회의 문 앞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미 많은 다수 세계 교회들은 가난, 공동체 간 폭력,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카스트와 민족적 차별,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 가는 공적 영역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바로 한때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선교를 지원하며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세계적 기독교 연대의 약화이다.

다음은 약해진 서구 교회가 세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방식이다.

1. 세계 교회 인프라를 지탱하던 재정적 지원의 약화

지난 200년 동안 서구 교회와 선교 기관들은 현대 선교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구축했다. 신학교, 성경 번역 단체, 출판사, 병원, 학교, 구호 네트워크, 그리고 기독교 미디어 플랫폼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 역사는 완벽하지 않았다. 식민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때로는 복음과 제국주의적 사고가 뒤섞이기도 했다. 선교와 함께 가부장적 태도가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수많은 세대를 교육하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세계 교회가 잃어가는 것은 단순히 재정 지원만이 아니다. 훈련 체계, 학문적 생태계, 정책과 법률 대응 능력,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제도적 경험과 기억이 함께 약화되고 있다. 박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지는 세계에서 이러한 역량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적 옹호의 약화

서구 교회의 영적 쇠퇴는 정치적·도덕적 영향도 가져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종종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세력의 일부였다. 이는 기독교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서구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거나 내부적으로 분열되거나 정치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옹호 활동 역시 약화된다.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다. 박해받는 신자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정부들은 외교적 압력을 덜 느끼게 되며, 언론의 관심도 줄어든다. 결국 억압적인 정권은 종교 박해에 대한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게 된다. 어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겪는 고통은 다른 지역의 큰 교회들이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

3. 서구 교회의 선교 훈련이 세계 교회로 확산된다

서구 교회의 쇠퇴는 단순히 교회 출석을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혼란도 포함한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단기 프로젝트나 브랜드 활동 정도로 축소시켰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전도를 모호한 인도주의 활동으로 대체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보다 문화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모습들은 책, 컨퍼런스, 팟캐스트, 후원 구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교회로 쉽게 전파된다. 그 결과 많은 다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이나 종교 다수주의뿐 아니라 서구에서 수입된 선교 혼란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교회는 종종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분열된다: ▲선교 없는 사회 활동 ▲사랑 없는 전도 ▲구호처럼 단순화된 제자훈련

4. 역선교 선교사들이 지원 부족과 차별을 경험한다

최근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선교의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과 북미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탈기독교 사회에 사는 현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회에도 여전히 증인을 남겨 두신다.

그러나 이러한 역선교 역시 쉬운 길은 아니다. 다수 세계 선교사들은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누렸던 지원 체계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사역한다. 그들은 이민 규제, 인종 차별, 문화적 피로, 그리고 깊은 신앙을 의심하는 서구 사회의 시선을 동시에 마주한다.

에 마주한다.

또한 그들 역시 다음과 같은 유혹에 직면한다: ▲서구 교회의 공연형 사역 모델을 모방하려는 유혹 ▲숫자로만 성공을 평가하려는 유혹 ▲민족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유혹

역선교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깊은 제자훈련, 문화적 이해, 그리고 거절을 견딜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

5. 서구 신학교의 신앙 이탈이 세계 신학 교육에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많은 다수 세계 지도자들은 서구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서구 학술 출판물에 의존해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계 교회에 큰 유익을 준 훌륭한 학문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서구 신학 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선택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수 세계 교회는 분별을 해야 한다. 복음에 충실한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가르침은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신앙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은 거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수 세계 자체의 신학교와 연구 네트워크, 출판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6. 서구의 분열적 디지털 문화가 세계 교회를 갈라놓는다

마지막으로 잘 논의되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수입되는 분열이다. 서구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그 혼란 역시 세계 교회로 전파된다. 알고리즘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이로비, 나갈랜드, 뉴델리의 교회들도 자신들의 맥락과 전혀 다른 온라인 인물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신뢰 대신 의심 ▲기도 대신 분노 ▲성경 대신 구호. 목회자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갈등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7. 새로운 협력의 갈: 공동 회개와 공동 섬김

만약 서구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신앙, 거룩함, 지적 진지함, 선교적 확신 속에서 강하게 서 있었다면 세계 교회가 받는 부담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목소리는 더 강했을 것이고, 선교와 교육 사역에 대한 지원도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다수 세계 교회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경험한다. 내부에서는 정치·사회적 억압과 외부에서는 세계 교회의 연대 약화다. 그럼에도 단순한 탄식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서구와 다수 세계 교회가 모두 함께 새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서구 교회는 복음 전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공격적으로 변하지도 않는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복음을 마케팅이 아닌 증언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

다수 세계 교회 역시 의존을 버리고 고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섬기는 자원은 감사함으로 받고 복음을 왜곡하는 구조에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역선교"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회개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상처 입은 서구 교회와 압박받는 다수 세계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몸의 가족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한다. 최승연 기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복음 사건의 동역자

최창국 교수, 사도행전 본문 통해 배제의 언어 성찰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건)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사도행전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온데 여전히 그를 '얕은뱅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온 표현이지만, 오늘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단어를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규정한다. 언론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 차별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동정을 구하는 수동적 인물로 이해되어 왔다. 무기력한 존재, 도움을 기다리

는 사람으로만 그려졌다"며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허용된 거의 유일한 경제 활동은 구걸이었다. 그의 구걸은 단순한 연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자 소명이었다. 그는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존을 수행한 사람이다. 그의 구걸은 무력함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능동적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개인의 생존 문제에만 머물지도 않았다. 그의 존재는 성전

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문(미문)과 대비되는 그의 몸은 종교 체제의 모순을 드러냈다"며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문 앞에는 40년 동안 한 사람이 배제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는 종교적 경건과 사회적 배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예언이었다. 그는 도움의 대상이기에 이전에,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장애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제를 허무는 이야기"라며 "그는 은과 금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의 이름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주셨다. 40년 동안 지켜온 그의 자리는 결국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무대가 되었다. 만약 그가 그 자리를 포기했다면, 그날의 증언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한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음 사건의 동역자였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며 "우리는 장애인을 고쳐야 할 대

상으로만 이해하는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동역자로 보는가? 우리는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의 언어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아울러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를 어떤 자리에 두는가의 문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교회가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지 묻는다"라며 "그는 연약한 몸으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동체의 경계도 함께 이동했다. 교회는 오늘도 그 경계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할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프 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국가)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새벽이슬 같은 청년



최선 박사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맑고 화창한 주말, 동역자들과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상공교회 진중세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군으로 향하였다. 오후 2시 제57기갑연단 966포병대대 은혜교회 담임 김성권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중세례식이 거행되었다.

26-2기 12중대 대략 300명의 훈련병들이 참여하였고 군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상공교회 목사님들, 대대장 조용수 중령과 많은 지휘관들이 참여하였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대견하였다. 젊은 청년들의 때창하는 실로암 찬양을 들으니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다.

실로암 가사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대는 차가운 새벽

이었고 주님 맘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요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생명의 말씀은 그들 인생의 앞길에 큰 등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강하고 담대한 삶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젊은 청년들이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바란다.

군부대에서 한 영혼이 더 주님께로 이

도되어서 군복음화를 이루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군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진중세례식의 중심을 이루는 세례고백과 선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의 증거로 문답을 하니 경건하게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자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합니까?

까?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군인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약속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삼일 만에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전방에서 근무 하게 될 십자가 군병으로서 범사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새벽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 되어 한국교회에 큰 기둥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신병교육대 아들들과 함께 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 고귀한 사역에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자식이란 무엇인가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펄택

흔적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는 자연과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묻는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거의 빛은 미래를 비출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을 끝없이 흐르는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이 유명한 대사는 훗날 Prince Hamlet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지만, 그 질문의 씨앗은 어쩌면 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지는지도 모른다.

자식이란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자식은 몸을 찢는 산고 끝에 얻은 생명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는 타협이 없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남는다. 영화 속 어머니의 눈빛에는 그런 모성의 절규가 담겨 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또 다른 의미다. 자식은 기대이고, 미래이며, 자신을 넘어설 꿈이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은 그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남겨진 아버지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

자가 드리운다. 아들의 죽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는 질문이 된다.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나날을 끝낼 용기가 인간에게 있는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또다시 살아간다.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운명의 공동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공감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감정, 곧 모성애와 부성애가 그 작품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극을 경험한 자만이 비극을 쓸 수 있다.

문제는 이 비극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날의 세계를 돌아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같은 장면을 남긴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장면이다.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서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인 Cain과 Abel의 비극도 결국 형제자

를 죽인 사건이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가족의 상처는 존재했다. 부모의 눈물은 인류 문명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질문은 더욱 절박해진다.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정치와 외교의 계산 속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전쟁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왕과 권력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깊은 바닥에는 가족의 슬픔이 흐른다. 한 아이의 죽음이 한 가정의 비극이 되고, 그 비극이 한 예술가의 작품이 되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든다.

어쩌면 인류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

가족의 비극은 곧 인류의 비극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자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질문 앞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가.

'사랑의 빛'진 자들의 '영적인 빛'



박현숙 목사
프린스턴 미션,
인터넷 선교 사역자

하나님은 비록 택하신 자녀들이라도 언제나 백슬라이딩할 걸 아시므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심령을 잃지 않을 것을 늘 주문하신다(사 57:15).

그런 하나님께선, 습관적으로 말씀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위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나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겠다고.

물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만이 아닌 세계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사 45).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고 이방나라가 아니었던가?

실제 선교현장에서 들려오는 많은 간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타종교인들에게 신비롭게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과거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키루스)'왕을 택하셔서,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셨다(사 44:45).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70년간 바벨론 포로생활로 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적 도운 고레스왕을 기억할 때,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이란 백성들에게 '영적인 빛'을 갠야할 의무가 있다.

필자가 수년 전, 미국에서 이슬람교도인 이란 유학생들이나 파키스탄인 또 모슬렘 유럽학생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대부분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어떤 학생은 실로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맙단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부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령의 기쁨을 더욱 부어주시고, 그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심으로써 이란 국가에 자유민주주의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의 해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오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다(산 7:7).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위로 부르 사랑의 빛을 지은 자들이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둔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자보다 높이시는 일이다(고전 1:27-29).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 신" 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사 45).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레퀴엠: 죽음을 넘어선 위로와 소망의 노래

유양선 교수
센트럴신학대학,
교회음악과 예배



센트럴 신학 단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에 따라 주일과 절기를 구분하여 지키도록 형성된 교회 달력을 “교회력(Liturgical Year)”이라고 한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고 간접적으로 경향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드리게 함과 동시에,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 “재현”하고 미래의 것을 현재에서 “기다리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 참회를 의미하는 “재(灰, 잿더미)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며 영적 성숙과 성결을 추구하는 기간, 즉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과

지, 주일을 제외한 총 46일간의 긴 여정을 지칭한다. 특별히 이 기간 중 종려주일 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를 Holy Week (거룩한 주간)로 기념하는데, 이는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 세족식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짐)과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기념하는 “성금요일”(Good Friday)을 포함한다.

필자는 한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겸 음악 조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해마다 이 절기가 돌아오면 많은 교회가 Holy Week와 부활주일에 어떤 음악을 연주할지 기획하며, 실제로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한다. 필자의 교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 칼럼에서 “교회음악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교회음악의 종류”, “교회음악의 장르”에 대해 간략히 기고한 바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사순절에 널리 연주되는 교회음악의 한 장르인 “레퀴엠(Requiem, 진혼곡, 이하 레퀴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레퀴엠은 가톨릭 예전 안에 있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Mass for the Dead)”를 의미한다. 교회음악사에서 레퀴엠은 수많은

작곡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소나타나 교향곡과 같이 음악사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건강상의 문제로 작곡 중이던 레퀴엠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이미 체결된 작곡 계약과 작곡료 문제로 인해 그의 작업은 완성하여 출판해야 했다. 이에 모차르트의 수제자이자 생전에 가까이에서 그의 창작을 도왔던 쥘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에게 작품의 완성을 요청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인 모차르트의 “Lacrimosa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인간의 슬픔을 더한다. 모차르트가 완성하지 못한 이 “라크리모사”는 이후 쥘스마이어뿐 아니라 모차르트 음악 전문 학자들에 의해, 모차르트가 남긴 여러 작품을 토대로 그의 음악적 색채를 추정하여 보완·재구성되었고, 레빈이나 만더 같은 학자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다양한 판본으로 전승

되고 있다.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오페라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이다. 오페라 작곡가다운 극적 감각이 반영된 그의 레퀴엠은 알레산드로 만초니를 추모하기 위해 작곡되었으며, 단순한 종교 음악을 넘어 거대한 스케일과 강렬한 표현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의 상징과도 같은 “Dies Irae (디에스 이레: 분노의 날)”는 음악 애호가 가 아니더라도 처음 몇 마디만 들어도 베르디의 레퀴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인 곡이다. 베르디는 이 “분노의 날”을 통해 인간이 죽음 이후 심판대에 설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폭풍처럼 몰아치는 합창과 타악기, 금관의 폭발적인 울림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죽음은 조용한 안식인 동시에 심판대 앞에 설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을 드러낸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레퀴엠, 즉 “독일 레퀴엠”은 전통적인 레퀴엠과는 다른 독자적인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레퀴엠은 가톨릭 전례문인 라

틴어 미사 통상문을 바탕으로 작곡된다. 그러나 브람스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라틴어 대신 독일어 성서 본문을 선택함으로써 음악과 더불어 가사가 주는 위로를 강조하였다.

브람스는 레퀴엠을 작곡하기 전 깊은 상실의 슬픔을 겪었다. 그의 절친한 동료 음악가 슈만의 죽음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개인적 상실과 좌절의 경험을 이 작품에 녹여냈다. 브람스에게 있어 레퀴엠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미사”이면서 동시에,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 곧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에도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브람스의 레퀴엠은 베르디의 오페라적 성향의 레퀴엠이나 전통적 라틴어 미사 형식을 따른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는 자국의 언어(독일어)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적 색채를 더했다. 이 작품은 7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특히 제5악장의

소프라노 독창에 등장하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는 이사야 66:13을 인용함으로써, 인간이 주는 위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을 확신하게 한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독교 절기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다. 레퀴엠 또한 애도의 음악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위로와 소망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음악적으로 나타난다. 교회음악이 가지는 많은 역할 가운데, 교회음악은 절기마다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 계승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브람스의 레퀴엠이 보여주듯 음악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 너머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위로와 희망으로 채워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교회 음악 이야기

서양음악사를 보면 페라프레이즈(Paraphrase)라는 음악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하는 선율이나 가사를 변형하여 새롭게 음악에 접목시키는 창작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14-16세기에 걸쳐 교회음악에서 단성 성가의 선율을 자유롭게 변형하던 기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죠스퀼 데 브레(Josquin des Prez 1450-1455)로 그가 하나의 선율을 변형시켜 여러 성부에 대입시켜 음악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음악 찬송역사에 있어 가사의 페라프레이즈 기법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교회음악의 큰 변화를 주도했던 두 인물을 꼽으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그리고 아이

삭 왓츠(Isaac Watts 1674-1748)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하는 시편의 내용을 바꾸어 그 당시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찬송을 만들어 그것으로 종교개혁에, 그리고 영국 찬송가 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아이삭 왓츠가 페라프레이즈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수난 찬송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작가인 아이삭 왓츠는 1674년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회중교회 장로인 그의 아버지는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신앙배경 속에서 자란 왓츠는 영국 스토크 뉴윙턴(Stoke Newington)에 있는 아카데미(당시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반대하는 하나의 독립교단, nonconformist academy at Stoke Newington)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의 나이 20세에 다시 사우샘프턴에 있는 부모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어느 주일날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는데 당시 교회예배의 전통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논박하며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영국 국교

인 성공회 교단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칼빈의 운율 시편가인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r)만이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왓츠가 제시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시편을 문자 그대로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찬송가는 단순히 먼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생각과 감정을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언어가 적절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시편뿐 아니라 복음서, 사신서에 나오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그 당시 언어로 페라프레이즈하여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구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하여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찬송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왓츠는 그의 생애 동안 750편의 복음 찬송을 만들면서 영국찬송의 아버지라



는 칭호를 받으며 영국 교회예배에 새로운 찬송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그의 찬송이 미국의 제 일차 대각성 부흥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s, 1730s and continued into the 1740)의 시기에 전파되어 주된 찬송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복음찬송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왓츠가 쓴 “주 달려 죽은 십자가(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는 그가 쓴 찬송 중 가장 훌륭한 찬송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707년 만든 이 작품은 “Crucifixion to the World by Christ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갈라디

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를 중심으로 해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같은 해에 왓츠 최초의 영국찬송가 모음집인 “Hymns and Spiritual Songs”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1824년 미국 작곡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에 의해 미국의 복음찬송으로 널리 알려지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 안에 담겨진 중심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난 2003년에 뉴욕에 있는 교회 “The Church of Holy Cross”에 두 번이나 도둑에 털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함이 털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상이 도둑맞았습니다. 120cm에 약 91kg 정도 무게의 큰 동상이었는데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벽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는 그냥 두었습니다. 당시 교회건물을 관리하던 데이빗 제임스(David James)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도둑이 십자가는 두고 예수님만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십자가도 가져가야 하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잠시의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 모두 다 흩어져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키며 능력을 행사하던 예수님을 취하고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는 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한다면 십자가도 가져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모든 것이 점점 더 편안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큰 요소는 영광의 예수님을 원하지만 고통의 십자가는 점점 더 희미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찬송작가 아이삭 왓츠는 결국 찬송을 통해 희미하게만 비추어졌던 복음의 핵심 예수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추어 내며 그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여 페라프레이즈 기법을 사용하여 찬송의 개혁을 일으킨 찬송작가였습니다.

2026년 사순절 기간, 이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를 나의 보석으로 밝게 비추어서 그 은혜를 선명히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감각의 시간들이 되고 싶습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경은 크리스천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12)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첫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공간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혼도 영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삶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혹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신만의 영동한 가짜 기독교를 만들기가 쉽다.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 재단해 버린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려 한다.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의지 주장에 따르면 우기는 모양과 같다.

둘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고

한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묵상은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용기를 만들어준다. 삶의 변화는 믿음을 실천할 때 일어난다. 깜깜한 방안에 햇빛이 비칠 때 먼지가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건강해진다.

셋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매우 유익하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아이들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같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9-11)

마태복음 7장의 비유처럼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를 마치 고행이나 수행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

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진솔하고 편안하게 것이 좋다. 진료실에서 간혹 심한 기침 감기에 힘든 몸 상태인데도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본다. 이런 분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기침과 몸살이 심한 것을 다 알고 계신 데 굳이 몸을 혹사하며 기도하려 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물어본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 하루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거나 화 내시는 분이 아니다. 자녀가 몸이 아파 끄떡거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 몸이 힘들면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기도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직접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간구하고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다. 마음이 지치고 육체에 심한 병이 들면 빨리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시간이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는 사방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사방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내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시길 기도한다.

공과교수 방법1: 말씀을 품은 교사의 진심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공과 시간은 교회학교의 가장 중심적인 순간이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에 연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공과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는지는 놓치기도

한다.

공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말씀에 감동되어야 한다. 교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진심이 자연스럽게 언어로 전해진다. 또한 공과 내용을 그대로 읽기보다, 아이들의 삶과 연결해 질문을 던져 보라.

"이 말씀은 우리 반 아이들이 겪는 어떤 상황과 비슷할까?"와 같은 열린 질문이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로 가르치는 태도다. 아이들에게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하는 눈빛을 주고, 한 명씩 이름을 불러 주는 순간이 곧 공과 교육의 시작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말씀은 놀라움 만큼 마음 깊이 들어간다.

공과를 잘 가르치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한 아이 한 아이를 향한 사랑의 시선과 말씀을 품은 교사의 진심에 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의료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社 說

“최악의 종교 탄압” 낙인찍힌 북한, 한국은

미국 의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최악으로 평가한 건 주체사상 기반의 통치 체제 하에서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교인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해 차별·차별고립시키고 강제노동과 처형 등에 처하고 있는 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교도소와 노동수용소에 약 8만~12만 명의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당국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최대 40만 명에 이르는 규모의 '지하 기독교인'이 존재할 것으로 봤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한국 국적의 선교사 감정옥·최춘갑·김국기 씨를 북한이 10년 넘게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미 국적자가 아닌 한국인의 북한 억류 사실을 USCIRF가 직접 언급했다는 건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미국 정부 간에 모종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기감 본부교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기감 측 관계자는 최근 미국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자와 한국교

회총연합 간에 면담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 3명 등의 구명 방안이 논의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의 질문에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게 사실이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정도로 무지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문제다.

2013년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인도 지원을 하다 북한에 끌려간 김정옥 선교사는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김국기, 최춘갑 선교사가 똑같이 북한에 억류됐는데 북한은 이들의 생사조차 10년 넘게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 외신기자회견 직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대통령실은 다음 날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해결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3개월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속이다.

지금 북한엔 탈북민 출신 3명을 더해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여러 차례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했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까지 지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예 국가사회로부터 북한 주민의 고통뿐 아니라 국민의 생사까지 외면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집합금지 명령’ 앞에 무너진 ‘신앙의 자유’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당과 야외 주차장 등에서 열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드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에 대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의 근본 목적은 오로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있다.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모든 교회를 법인으로 취급한 데 있다. 실제 예배와 관련한 확진자 수가 미미했음에도 방역 당국이 수를 부풀려 모든 교회 예배를 통제했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당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거리 제한으로 수를 통제하더니 아예 문을 닫게 했다. 수차례 집합금지 위반에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무얼 말해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급감한 회집 성도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등 예배를 중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코로나 확산 집합 명령을 어긴 손 목사는 당국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권력은 정치에 종교를 끌어들이어 이용하긴 해도 그 종교가 흥하는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값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다.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일할 권리를 가로막는 장벽, 교회가 '일의 다리'를 놓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튜어트 맥컬록의 기고글인 '사람들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We must build bridges to meaningful work)'를 최근 게재했다.

스튜어트 맥컬록은 크리스천스 어게인스트 포버티(Christians Against Poverty)의 최고경영자(CEO)로 섬기고 있다. 그의 역할은 영국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운동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빚에서 해방시키고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의 개인적인 열정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이전에 국제 보험 회사를 이끌었으며, 이후 자신의 신앙과 일을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월드비전(World Vision)과 스튜어트십(Stewardship)과 같은 기독교 자선 단체에서 사역해 왔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일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의 경우 평균적인 성인은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며 살아간다. 유급 노동이든, 가정에서의 무급 노동이든, 혹은 돌봄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이든 간에 '일은 우리가 시간과 재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적 원칙과 전통에 기초해 설립된 크리스천스 어게인스트 포버티(CAP, Christians Against Poverty)는 일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 일은 인간에게 의미와 존엄, 그리고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에서만 수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존엄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다. 그 문이 굳게 잠겨 있기 때문이다.

CAP는 올해 영국에서 사역 30주년을 맞아 '일의 장벽: 도전, 지원 그리고 해결책(Barriers to Work: challenges, support and solution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교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CAP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최신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현대 노동 시장의 병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은 더 이상 기회의 사다리라 아니라, 도리어 성문이 굳게 닫힌 요새처럼 느껴진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됐지만, 그 안에 담긴 주제—반복되는 거절, 구조적인 실업, 그리고 그와 결합된 심각한 부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실업자를 단순한 통계 수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빼앗긴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해자: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길은 복잡하게 얽힌 여러 장벽으로 막혀 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영국에서는 실업자 가운데 42%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취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구직 과정 자체가 오



스튜어트 맥컬록. ©www.stewardship.org.uk

려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들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거나 자동화된 거절 통보만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00만 명의 성인이 최소 10년 이상의 취업 지원에서 실패한 경험을 했다. 조금 작문에 지원했음에도 열 번, 스무 번, 심지어 십 번까지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느낄 자존감의 상실은 어떨겠는가. 이것은 단지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CAP 취업클럽 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의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간다." 결국 사람들은 월급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 잃게 된다.

게다가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상황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파트타임 노동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정

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재정 문제로 지속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제 일자리는 더 이상 빈곤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탈출구가 아니다.

부채와 실업은 일종의 '캐치-22' 상황을 만들어 낸다.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직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안정 자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다리를 놓는 공동체

그렇다면 이 요새의 도개교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CAP의 보고서는 영국 정부를 향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대면 상담 지원, 기업의 유연한 고용 정책 확대, 그리고 '생활 가능한 소득' 전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이다. 2013년 이후 CAP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취업클럽(Job Club)을 운영해 왔다. 이곳은 정부 사무실이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다.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코칭을 받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그 효과는 분명하다. 영국 전체 인구 가운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39%가 "대면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는 에이미(Amy)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그녀는 보육시설에서 일하던 직장을 잃은 뒤 월 500파운드로 짐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며칠씩 굶는 날도 있었다.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CAP 취업클럽은 그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가진 독특한 강점이 드러난다. 정부는 복지 제도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둔 공동체만이 진정한 회복을 제공할 수 있다.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요청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요새'라고 부르는 노동 시장의 장벽은 여러분의 도시와 마을에도 존재한다. 어떤 곳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학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삶의 경험을 무시하기도 한다. 범죄 기록에 대한 낙인 때문에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벽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적 고통은 동일하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30-37)에서 자비와 긍휼을 보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지상명령(마태복음 28:18-20)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단지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삶의 회복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만약 노동자의 20%가 건강 문제나 돌봄 책임 때문에 직장 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교회는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될 수 있으며,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어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

도록 연결해 줄 수 있다. 교회가 취업클럽을 열 때 그것은 단순히 이력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맡겨진 재능을 책임 있게 돌보는 청지기적 사역이다.

◆앞으로의 길

앞으로의 도전 역시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에게는 연령 차별이 여전히 기회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다시 불붙이는 사람들이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CAP는 이번 보고서가 그러한 정책에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법과 정책만으로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

이제 전 세계의 교회가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볼 차례다. 누가 이 사회의 '해자' 밖에 남겨져 있는가? 아이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인가, 정신 건강 문제로 주 35시간 근무가 어려운 사람인가, 기회를 잃어버린 노동계층의 청년인가?

이제 우리가 도개교를 내려야 한다. 일은 사회와 경제에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중요하다. 가장 연약한 이들이 일할 기회를 얻도록 돕는 일은 단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승연 기자

밀알복지재단, 오디오와 AI 오디오북 협업...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품 193편 공개

밀알복지재단이 오디오와 협업해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품 193편을 AI 오디오북으로 제작했다.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품 193편이 AI 오디오북으로 공개된다. AI 오디오북은 오디오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 오디오엔(Audien)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진행한 '장애 인식 개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작품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오디오북에는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주요 작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장애 당사자의 삶과 일상, 가족의 이

야기를 담아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담은 작품 총 193편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됐다.

오디오북은 단편 위주의 공모작 특성을 반영해 작품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총 9종의 시리즈 형태로 제작됐다. 완성된 콘텐츠는 기업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무료 오디오북 앱 '오디언 도서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I 오디오북 제작은 오디언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제작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원고 구성과 시

리즈 편성, 표지 제작 등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작품별 발화 속도와 호흡, 톤을 세밀하게 조정해 자연스러운 청취 환경을 구현했다. 이 과정에 전문 PD가 참여해 전체 음원을 전수 점검하며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오디언 스튜디오에서는 시각장애인 성우가 직접 참여한 영상 콘텐츠 촬영과 녹음도 함께 진행됐다. 성우는 점자 단말기 '한소네'를 활용해 낭독을 선보였으며, 녹음과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제작의 효율을 더했다. 해당 영상은 후속 편집을 거쳐 밀알복지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소중한 이야기들이 AI 오디오북으로 재탄생해 더 많은 시민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제작을 함께해 준 오디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각장애인 성우의 목소리가 직접 담긴 콘텐츠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디언 김용호 대표는 "밀알복지재단의 소중한 스토리들이 오디오 콘텐츠로 재탄생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시각장애



인 성우와의 협업은 오디오 기술이 가진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

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고품질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성과 감동을 함께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매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웹툰 '밀알툰' 및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올해 7월에도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감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엔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이견비엔코(주)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대표 김덕검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사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리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회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신간 **하나님 찬스**



한 신학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돌아보는 신앙 회고록 <하나님 찬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유명기 교수(전 합신대학교 구약학)가 8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며 경험한 사건과 만남,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스'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기록이다.

<하나님 찬스>는 단순한 성공담이나 미화된 간증집이 아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개종을 경험하고 신학교에 진학한 이후, 두 차례의 미국 유학과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과정, 교수 사역과 교회 사역, 건강의 위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낸 신앙적 고백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말한다.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만남'을 강

조한다. 그는 인생에서 경험한 많은 만남이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이 배후신 축복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이러한 만남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찬스'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성경의 씨 뿌림의 비유와 연결해 이해한다. 저자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로 이어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씨앗조차 인간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주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학문과 삶 사이의 거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언약신학과 성경신학을 연구한 신학자이지만, 책의 서술 방식은 철저한 삶의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학은 강의실이나 논문 속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눈물, 아내의 헌신, 교회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긴 성도들의 손길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학문은 삶으로 내려오고, 신학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찬스>는 개인의 신앙 회고록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 현대사를 증언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책에는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교육의 정신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역의 내밀한 이야기, 교회 부흥과 침체의 현장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신학교"라는 개념은 제도권 신학교를 넘어 평생 하나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개념을 넘어 신앙인의 평생 학습과 영적 성숙을 강조하는 신학적 제안으로 읽힌다.

<하나님 찬스>는 그 질문에 대한 한 신학자의 진솔한 대답이자,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바울서신과 복음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종말'의 신앙을 깊이 있게 탐구한 신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성경 본문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학문적 주해와,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향한 목회적 통찰을 결합해 신학적 깊이와 영적 울림을 함께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두 축으로 '부르심'과 '종말'을 제시한다. 저자는 바울서신과 복음서에 나타난 주요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 이해를 넘어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부르심이며 동시에 종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신앙의 출발점으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고, 종말의 소망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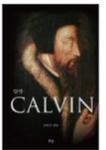
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이 책의 특징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다. 저자는 헬라어 원문과 문맥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존 해석을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더 큰 은사"에 대한 이해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 구절은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저자는 바울의 의도가 은사 사이의 위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본문의 의미를 다시 읽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을 익숙한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성찰하도록 이끈다.

또한 책은 바울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해 역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한다. 저자는 현대 교회에서 흔히 조직된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전략과 연결해 전도를 이해하는 경향을 언급하며, 1세기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랐음을 강조한다. 로마 제국 시대 지중해 세계를 떠돌며 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했

던 바울은 안정된 목회 구조나 제도적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삶 전체를 내놓은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재구성은 바울의 선교 열정을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묻는다.

초기 기독교 역사와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시도도 눈에 띈다. 저자는 디모데전서와 「스칼리움의 순교자 행전」을 나란히 놓고 읽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통치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핀다. 이 순교 문헌 속에는 디모데전서와 로마서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으며, 순교자들이 바울서신을 소중히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초기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 본문을 단지 교리적 텍스트가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실제 삶과 연결된 역사적 문서를 읽도록 돕는다. 최승연 기자

신간 **칼뱅**



브루스 고든의 평전 <칼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장 칼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형성돼 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아닌 한 명의 역사적 인간으로서 칼뱅의 삶과 사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전기다.

IVP 출판사에 따르면, <칼뱅>은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와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장 칼뱅(1509~1564)의 생애를 세밀하게 따라간다. 젊은 시절 종교개혁 신앙을 통해 심오한 회심을 경험한 칼뱅이 이후 망명자이자 개혁자로 살아가며 유럽 전역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책은 출간과 함께 해외 주요 매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르네상스 매거진'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고, '퍼

블리셔스 위클리'는 저자가 칼뱅을 그가 살던 16세기 맥락 속에서 살피며 그의 성경 해석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비전을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BBC 히스토리' 역시 이 책을 두고 "계속 확장되는 학술 문헌들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 칼뱅 전기"라고 소개했다.

저자 브루스 고든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럽사를 연구해 온 역사학자다. 그는 칼뱅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사회·종교적 환경은 물론, 칼뱅이 남긴 방대한 서신과 주석, 설교를 폭넓게 검토해 이 전기를 집필했다. 이를 통해 칼뱅의 사상만이 아니라 그의 성격, 인간관계, 시대적 갈등까지 입체적으로 복원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저자는 칼뱅 신학에 남아 있는 법학 훈련의 흔적에 주목한다. 책에 따르면 칼뱅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질서와 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

배경에는 그의 법학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칼뱅의 해석 원리는 당시 인문주의 법학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분석은 칼뱅을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법률가적 사고를 지닌 사상가로 이해하게 만든다.

논쟁적 주제도 피하지 않는다. 세례베투스 처형 문제와 관련해, 저자는 이를 현대적 기준으로 단순 재단하기보다 16세기 종교개혁기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피야 한다고 설명한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이단 논쟁과 가톨릭의 반격 속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칼뱅 역시 이 사건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처형 권한은 제네바 의회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칼뱅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반대로 단순화하지 않고, 당시의 구조와 책임을 함께 살피려는 태도가 이 책의 특징으로 읽힌다. 최승연 기자

3월, 작가들의 **말말말**



구원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력하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구원은 내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는 구원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없다. 특히 죄에 관한 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력하다. 따라서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곤궁에 처한 나를 힘 있는 누군가가 간직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구원은 은혜로 마련하신 것을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의 근거는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될 수 없다. 구원의 출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다. 혹여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이루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이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시며 각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신 신적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다. 양형주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구원의 '되풀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무덤조차 막지 못했던 우리를 찾기 위해 '살아' 돌아오신 주의 사랑 덕분에 끝없이 반복될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도 역시, 세상의 주인에게 마련된 편하고 반듯한 길에서 가까이 '벗어나'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계속해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여정 아닐까 싶다. 모호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고되고 피로한 나날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음을 빼앗으려 들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계적 도덕성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끝없는 도로에서 벗어나 온갖 낮은 곳들을 찾아 들어간다면, 그분이 터 주시는 새로운 오솔길을 따라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김승은, 김희진 '영성이용'



비교의 시선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부르심의 시선은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 다른 사람의 빛을 질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리한다. 모든 사랑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움의 교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좋은 공동체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닌 실천과 경험으로 드러나는 곳. 그곳이 진짜 공동체다. 오늘 나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붙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다. 이우식 '햇살이 비치는 한 만지도 빛입니다'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문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뭄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53)

하나님나라 선포

예수 그리스도교회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기독교 성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궁금하여 모여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나라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현세를 마친 후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을 통하여 가는 하나님나라 '천국'이었고 다른 또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적, 사명적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나라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 개의 하나님나라 중에 후자를 더욱 강하게 선포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복귀시켜 줄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두 개의 하나님나라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하나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 의하여 비로소 전파된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들

이 가는 하나님나라(천국)이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신학원리는 몰랐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초기 기독교와 중세기독교는 물론이요 현대기독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에만 몰두해 있을 뿐 기독교가 현세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섭리 선포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섭리 선포에 전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나가는 세들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선포했고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만을 하나님나라로 이해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적 차원의 섭리만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몰이해(誤

理解)역시 초기기독교와 중세기독교는 물론이요 현대기독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아직도 many 목회자들이 구속사적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에만 몰두해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말씀 선포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제자들에게는 물론이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훗날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정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학이었다. 때문에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로고스-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선포하였고 신학자들은 그것을 로고스신학이라고 정립하였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며 병자나 귀신들린 자를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차

적으로 진행되는 보조적인 것임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병자나 귀신들린 자를 내쫓는 기적과 이적에 더욱 매력을 느끼며(행 8:18-24) 이러한 비진리는 현대기독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자훈련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제자훈련을 실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신학적인 것임과 동시에 신앙적인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실제적 삶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사신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적 삶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기독교역사에 항상 무시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섭리적 차원에서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구속사적인 차원의 교리만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사명적 차원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자에게 충성 복종하는 신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신들은 전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 "저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마 6:2)는 말씀과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 못하니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마 23:3)는 말씀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교회사명 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기독교의 수장이 된 후 통치주로서의 권위와 권세로 모든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그것은 창 1:28을 통하여 부여된 사명으로서 아담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일률적으로 영원히 부여된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마 5:13-16과 마 6:33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

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기 직전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사명을 상기 시켜주면서 모든 교회들의 사역 현장에 자신의 영(성령)이 함께 하시라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인(印)쳐주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교회의 사명은 조직신학에서 정리할 문제임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원론적인 것만 정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립하여 주신 교회사명의 원론은 다음과 같다. * 진리를 사수하고 보존하고 보전하는 것이며, *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영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 하나님의 교회들을 계속하여 영원히 세워가는 것이며, *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달무리의 지혜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을 못 참고 열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몫만 텅 비어 있는 것을 속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한 개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 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 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겠나?"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고 하기로 합의했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 동안 그것이 만들어 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달걀

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 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열 여덟 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열 여덟 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열 여덟 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솔로몬이 법정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년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자에게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값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발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이 무슨 뚱뚱지같은 소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말이야." 소년은 즉시 발에 나가 솔로몬이 말

해준 대로 발이랑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을? 삶은 콩을 밭에 심는다고 씩이 돌아 나온 다더냐? 별소릴 다 듣겠네." 소년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였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는 사이에 이야기가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네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일러준 것이라고 진실을 털어 놓았다.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년은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제공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43)

나는 누구의 편인가

본문

여호수아 5장 13-15절

서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내 편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

나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본문

1. 전쟁을 앞둔 지도자의 긴장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상황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넌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범람하던 강이 멈추고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 평안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깊은 긴장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2. 길가에 진을 치다 : 전쟁보다 먼저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뒤 이스라엘은 길가에 진을 친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 달 십일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치며”(여호수아 4:19) 길갈은 이후 가나안 정복의 첫 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단순한 군사 기지 로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성의 내면과 정체성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싸움보다 먼저 사람을 다루십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1)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심=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여호수아 5:2)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기술보다 먼저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전쟁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2) 애굽의 수치를 굴러 버리다=할례가 끝난 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여호수아 5:9) 그래서 그



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 다. 길갈은 “굴러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단순히 과거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노예 의식과 패배감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수치에 묶인 백성이 아니다.”

3) 첫 유월절을 지키다=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여호수아 5:10)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수 5:12). 이는 하나님이 공급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더 성숙한 자리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3.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 : 지도자의 현실적 긴장

이제 본문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자라”(여호수아 5:13)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요단강은 건넌 길갈에서 언약의 갱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며 상징적인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단순히 믿음 좋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 줍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생각하며 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앞에 서 계

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상황을 분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먼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4.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여호수아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여호수아 5:13) 이 질문은 전쟁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칼을 든 낯선 존재가 있다면 먼저 그가 누군지 적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전쟁을 “우리와 우리의 적들”이라는 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 틀 자체를 깨뜨립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여호수아 5:14) 이 “아니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제시한 두 선택지, 곧 “우리 편”과 “적의 편”이라는 구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소속되는 분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전술적 지원군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질문을 뒤집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내가 누구 편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데 있습니다.

5. 여호수아의 반응 : 즉시 엎드렸다

여호수아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여호수아 5:14) 여기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언제나 앞장서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능력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여호수아 5:14)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6. 신을 벗으라 : 거룩한 자리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여호수아 5:15)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렘산에서 들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5) 이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동일한 거룩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보다 순종이 우선이고, 전략보다 경의가 우선입니다.

7. 오늘 우리의 질문 : 나는 누구의 편인가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마태복음 12:30)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편인가 서 있습니다. 세상의 편에 설 수 있고, 욕망의 편에 설 수 있고, 권력의 편에 설 수 있고, 자기 뜻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승리가 시작됩니다.

결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셨”(여호수아 6: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일

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는 사람만이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인지 묻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전 교인을 위한 기도 필독서 캠페인
“언제까지 남의 기도문에 의존하시겠습니까?”

하트루타식 기도훈련 적용 가능!
- 질문하며 읽고, 나누며 배우고, 기도하며 적용한다
- 셀 모임 / 제자훈련 / 청년부 / 교회학교까지 전 세대 활용 가능!

- ✓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운 성도에게
- ✓ 기도 습관을 배우고 싶은 새신자에게
- ✓ 공동체 전체의 기도 체질을 바꾸고 싶은 교회에

단체 구매 및 친 교회 기도 캠페인 문의 edu1004@naver.com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 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은혜의 샘물 교회, 뽑힌 사람들의 모임 (2)

1814년 충청도 청양 출신의 김시우는 반신불수로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처지였으나 배교자의 밀고로 교인들이 잡혀갈 때 자기는 불구자라고 해서 잡아가지 않자 울면서 함께 잡히기를 애원했고, 마침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자 옛 중국 고사를 들어 교리를 유창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창피를 당한 감사가 그의 턱을 부수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했다.

1799년 충청도 해미 감옥에서 옥사한 박취득은 감옥에서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끝에 기절하고 말았다. 옥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 그러나 그 이튿날 깨어난 박취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감옥에 찾아가 "나는 굶겨도 죽지 않고 때려도 죽지 않으니 차라리 목을 매서 죽이시오"라고 죽기를 간청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소교당하는 것

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시우와 박취득과 같이 순교를 자청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본문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란다. 이 말씀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들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과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선민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선민의 성격, 선민의 사명, 또는 선민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

이다. 하나님의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자의 훈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코자 함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격리될 수 없다.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 일을 가장 위대하게 해낸 분이 예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다.

출애굽기 19장 5-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 계약 때에 말씀하셨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실히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배턴이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도와 봉사와 구제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

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을 보면,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선민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교회오빠

지친 40대를 위한 단상

40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동무들과 학교 가는 길엔 아직 개울물이 흐르고, 강가에서는 민물새우와 송사리 때가 감정 고무신으로 퍼 올려 주기를 유혹하고, 학교 급식 빵을 얻어가는 고아원 패거리들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이유를 몰랐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생일 때나 되어야 도시락에 계란 하나 묻어서 몰래 숨어서 먹고, 소풍 가던 날 나무사구 속에 사과 2개, 계란 3개, 사탕 1봉지 중 반 봉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을 위해 꼭 남겨야 하는 걸 이미 알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일본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625를 겪은 어른들이 '너희처럼 행복한 세대가 없다'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때마다 일찍 태어나 그 시절을 같이 겪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행복 사이에서 말없이 고구마와 물을 먹으며.. 누런 공책에 '바둑이 이리와 이리오나라'나하고 놀자'를 침 문헌 몽당연필로 쓰다가..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들 때에도 우리는 역시 이름 없는 세대였다.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외운 국민교육현장, 대통령은 당연히 박정희 혼자인 줄 알았으며, 무슨 이유든 나라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배웠으며, 학교 복도에서 고무공 하나로 30명이 뛰어놀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검은 교복에 뺨뺨머리, 6년간을 지옥문보다 무서운 교문에서 매일 규율부원에게 맞는 친구들을 보며 나의 다혈스런 하루를 스스로 대견해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손바닥을 담임 선생님께 맡기고 결상을 들고 벌서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름 없는 호떡집, 분식집에서 여학생과 놀다 학생지도 선생님께 잡혀 정학을 당하거나, 교무실에서나 화장실에서 벌 청소를 할 때면 연애박사란 글을 등에 달고 지나가던 선생님들에게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힐 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용담이 되던 그때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419 세대의 변절이나 유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자동 거수기나, 애국자이니 말들이 분분하고 뇌물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간첩들이 잡히던 시절에도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론가 잡혀갔다 와서 고문으로 병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술집에 모여 술을 죽이며 들었으며, 책 한 권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선배님의 아픔을 소리 죽여 이야기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빛깔 좋은 유신 군대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복날 개보다 더 맛고, 탈영을 꿈꾸다가도 부모님 얼굴 떠올리면 참았고, 80년 그 어두운 시절 데모대 진압에 이리저리 내몰리면 아쩔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누어 진압군이자 피해자였던 그때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복합한 뒤에는 시험 때 후배는 만인의 컨닝 페이퍼인 책상을 이용했지만, 밤새워 만든 컨닝 페이퍼를 주머니에서만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던 그때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일제 시대, 625 시대, 4.19 시대, 5.18 시대, 모래시계 시대.. 등등 자기 주장이 강하던 신세대 등



모두들 이름을 가졌던 시대에도 가끔씩 미국에서 건너온 베이비 붐 세대 혹은 6.29 베타이 부대라 잠시 불렀던 시대에도 우리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가지지 못했던 불명의 세대였다. 선배 세대들이 꼭 말아준 보따리에서 구경하듯 모아서 겨우 일을 배우고, 혹시 꾸지람 한마디에 다른 회사로 갈까 말까 망설이고, 후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노래 부르는 늙은 세대들.. 아저씨 젊다는 이유로 후배 세대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입금 인상, 채우 개선 등 말아서 주장하는 세대..

단지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등.. 조직의 간부란 이유로 조직을 위해 조직을 떠나야 하는 세대들.. 팀장이란 이상한 이름이 생겨서 뒷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노조원 신분이 아니어서 젊은 노조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드러누운 정문을 피해 쪽문으로 회사를 떠나는 세대들.. IMF에 제일 먼저 수몰되는 세대, 미혹의 세대..

오래 전부터 품어온 불길한 예감처럼 맥없이 무너지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우리만의 이름으

로 부른다. 선배들처럼 힘 있고 멋지게 살려고 발바닥 치다가 어느 날 자리가 불안하여 돌아보니 늙은 부모님은 모셔야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고 벌여놓은 것은 한겨울 지 내기도 빠듯하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고 도전하기에는 늙은 사람들.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말 잘 듣고 암시만 주면 짐을 꾸리는 세대. 주산의 마지막 세대, 캠프의 제1세대.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들은 독재자로 모시는 첫 세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처와 부모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 부른다.

50대는 이미 건넌고 30대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길 기다리는 이 시대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바둑돌의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쓰다가 늦은 밤 팔지 못해 애태우는 어느 부부의 봉어빵을 사 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가 아무도 먹지 않을 때, 밤늦은 책상머리에서 혼자 우물거리며 먹는 우리를..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름 없는 세대였다가 이제야 당당히 그들만의 이름을 가진 기막힌 세대.. 바로 이 땅의 40대 고속 성장의 막차에 올라탔다가 이름 모르는 간이역에 버려진 세대. 이제 우리가 우리를 퇴출이라고 부르는 세대. 진정 우리는 이렇게 불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관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땅의 40대들이여.. 스스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창글산 봉목사 제공

향유옥합

기도하는데 정녕 중요한 것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틀리면 답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명쾌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그분 자체와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KOMKED, MK 단기거주 지원사업 '콤콤하우스' 운영

군인 MK 휴가 기간 등 한국 체류 선교사자녀 대상 평촌 콤콤하우스에서 최대 1개월 무료 거주 지원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이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자녀(MK)를 위한 '콤콤하우스' MK 단기거주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MK 단기거주 지원사업은 한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자녀들이 일정 기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머물며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선교사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잦은 이동과 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을 겪기도 한다. 특히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군인 MK의 경우 짧은 휴가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어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은 군인 MK를 포함한 모든 MK들을 위한 단기 거주 지원 체계를 마련해, 휴식이 필요한 MK들이 일정 기간 안정적인 공간에서 머물며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기관 측은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과 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콤콤하우스의 모습. ©기록일보DB

계적 연결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생활 중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군인 MK들에게는 휴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이 되며, 다른 MK들에게도 삶의 전환기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된다는 취지다.

사업은 평촌에 위치한 '콤콤하우스'를 활용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에서 머물며 단순한 체류를 넘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 기관 측은 이 공간이 MK들에게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의 자리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은 새중앙교회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협력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교사자녀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MK들의 삶의 다양한 전환기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군인 MK ▲한국 체류 중 단기간 머물 공간이 필요한 MK ▲학업, 진로 준비, 전환기 등의 이유로 단기 거주 공간이 필요한 MK 등이다.

지원 내용은 평촌 '콤콤하우스' 주거 공간 제공으로, 이용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다. 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2주 이상 이용할 경우 퇴실 청소비 12만 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은 1인 1실 원칙으로 운영되며 가족 또는 친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생활의 일환으로 '프라인워십(PRAIN

WORSHIP)'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저녁식사 교제 포함)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29길 11에 위치한 아현중앙교회에서 진행된다.

식사는 새중앙교회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비는 2주 미만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최 측은 "다음 이용자들을 위해 배려하며 시설을 책임 있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콤콤하우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bit.ly/komhou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관련 문의는 이메일(komked@komked.org)을 통해 가능하다.

장지동 기자

한국스카우트 기독교연맹, 삼일절 기념 파주 연합 애국 등반대회 개최

새벽이슬교회 집회 후 한국근현대사박물관·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하며 역사와 평화 의미 되새겨

한국스카우트 기독교연맹(연맹장 최상열)은 삼일절을 기념해 파주 소재 새벽이슬교회에서 '2026년 31절 기념 연합 애국 등반대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등반대회는 박경원 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용원 대장(기독교연맹 치프카미셔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며, 김태준 대원이 대표로 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이어 서은배 대장(기독교연맹 이사)은 '31 운동과 스카우트 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꿈을 넘어 꿈을 꾸는 스카우트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삼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최상열 대장(연맹장)은 대장 이야기를 통해 연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고 등반대회를 위해 협조한 각 지역대 대장과 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격려했다. 이후 연맹가 제창과 안현아 대장(EMD스카우트 단대장)의 환호로 집회 순서를 마무리했다.

행사 이후 대원들은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을 방문해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7만여 점의 시각 유물 자료를 통해 재현된 한국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 부모 세대의 생활사와 나라의 발전 과정을 돌



한국스카우트 기독교연맹 3.1절 기념 연합 애국 등반대회 참석자 기념 사진. ©주최측 제공

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아 강 건너편의 북한 황해도 지역을 육안으로 바라보며 전쟁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생각해 봤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한 대원은 "오랜만에 대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요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통해 다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 소속 종교별 특수 연맹체인 한국스카우트 기독교연맹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04다나-1원단, 1009월드비전단, EMD스카우트단 등 16개 소속 지역대가 활동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나사렛대,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배출

장운태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 1위... 강태준 선수 3위 기록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가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지역 대학 스포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4학년 장운태 선수는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한 '2026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같은 학과 3학년 강태준 선수도 3위를 기록하며 차세대 국가대표 주자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와 9월 춘천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운태 선수는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두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에서도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실전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지역 대학 스포츠 경쟁력을 높여왔다.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이충영 교수는 "이번 결과는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과 지도진의 체계적인 훈련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태권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2026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 1위 장운태 선수(앞줄 왼쪽), 3위 강태준 선수(앞줄 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했다. ©나사렛대

한세대, 2026학년도 전기 외국인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디자인관서 진행... IEQAS 7년 연속 인증대학, 비자·장학·학사 안내로 안정적 유학생 지원 강화

한세대대학교(총장 백인자)가 최근 디자인관 401호에서 2026학년도 전기 외국인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교류교육원(원장 최종우)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세대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재인증을 받았다. 2025년 2학기 기준 중국, 대만, 몽골, 베트남 등 출신 외국인 유학생 176명(학부 18명,

석사 60명, 박사 98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학기에는 석사박사과정 신·편입생 23명이 추가로 입학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교직원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롱 국제교류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교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학사 일정과 졸업 이수 학점 안내, 장학금 정보 제공, 출결 관리, 비자 연장 시 유의사항, 기타 학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가 이어졌다. 이후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 시설을 둘러보며 학습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한세대 2026학년도 전기 외국인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기념 사진. ©한세대

마련됐다.

특히 비자 연장과 장학금 관련 안내에 대한 신·편입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출결 관리와 졸업 요건에 대한 설명은 체계적인 학업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종우 국제교류교육원장은 "한세대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학업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세대대학교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7년 연속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간 공식 인증을 유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선발 시 우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목소리와 표정으로 표현하십시오



김남수
286-7)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 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다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 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오래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부전공인 성악을 가르쳐 주신 모젤 셔먼(Mozelle Sherman) 교수는 내 노래를 들더니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말 멋진 소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아주 아름다운 소리아! 그런데 가사를 눈과 몸으로 표현해보아라." 한마디로 소리는 좋은데 표현은 아주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몇 번이고 낭송하며 표정을 짓느라 어색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들을 수 있는 오디오보다 볼 수 있는 비디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분은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찬양을 목소리와 표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음악의 내용이 목소리는 물론이고 눈빛, 표정, 태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외적으로 잘 표현된 찬양에 회중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를 파악하여 찬양, 기쁨, 확신 등의 의미를 목소리와 태도

로 표현해야 합니다. 소리도 중요하지만 표정의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실수하더라도 침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도 이따금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찬양 중에 실수하더라도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말고 몸가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주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남의 실수에도 관여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할 때 회중은 찬양대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몸짓을 하거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회중이 알게 되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당당하게 찬양하십시오!

간주 부분에서도 노래하는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주자의 전주, 간주, 후주, 또는 독창자의 노래가 있는 부분에서도 찬양대원은 음악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노래하는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은 파트가 쉬는 부분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파트가 쉬다고 회중을 바라

보거나 노래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는 부분에서도 음악의 분위기를 마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유지하면 서 이어질 음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이며 음악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마음의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 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좋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바퀴가 없으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영적인 준비 없이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없으며,

음악적인 이해 없이 마음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찬양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찬양은 우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최선의 찬양을 위하여

당신은 노래할 때 가사에 알맞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확인해 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표정을 갖고 노래해 봅시다.

◆ 김남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음악춘추사)과 《코랄 앤딩이 있는 찬송 데스크트》(미완성출판사)를 작곡하여 출판했으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새찬송가 158장) 외에 여러 교회음악을 작곡했다.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오산출판사),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숨겨진 찬송이야기』(아가페북스) 등을 저술하여 교회음악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다.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



김은희

인사말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중찬송반주뿐만 아니라 전주, 후주, 찬양대 반주, 헌금송 등 담당해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는 소명의식, 믿음, 헌신, 전문성, 준비성과 같은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르가니스트는 영성 없는 기교위주의 음악이 아닌 영성 있는 연주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 지난 수백 년 동안 예배에서 사용되어온 오르간이 얼마나 풍부한 유산을 남겼으며,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예전적 예배를 갈망하는 한국교회 예배에서의 오르가니스트의 역할과 기여, 자세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대 음악가 J. S. 바흐가 보여준 모범을 한국교회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 J. S. 바흐처럼 잘 준비된 예배 반주자로서, 신학과 음악적 역량을 함께 구비한 예배음악의 전문가로서 예배를 더욱 더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데 영향력을 끼치시는 오르가니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며

윌리엄 맥스웰(William Maxwell)은 저서 『기독교 예배의 역사(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에서 "오늘 개신교회 안의 많은 영역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가 있다면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St. Thomas Church)의 오르가니스트 겸 칸토르(음악감독)로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예배음악은 회중들의 덕과 성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신앙이 있으며 신앙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 및 음악사상의 영향으로 예배음악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오르간을 예배 악기로 정착시켰습니다. 개혁자 루터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바흐의 오르가니스트로서의 삶은 모든 시대의 예배 반주자, 오르가니스트들이 닦아야 할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현대적인 형태의 예배가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해 한국교회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식(예전)의 약화에 대해 예배학자

들도 예배를 실용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승중 교수는 현대교회의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고, 개인적인 기도와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예배의 주체와 대상인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인간이 예배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사회문화적인 변화들이 교회와 교회사역, 그리고 예배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 나눔을 통하여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오르간 사용을 통한 개신교회예배의 풍부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예전적 예배를 갈망하는 한국교회 예배에서의 오르가니스트의 역할과 기여, 자세 등에 관해 바흐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김은희

미국 Southeaster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과정과 University of Northern Texas에서 음악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Duquesne University, Pittsburgh에서 M.S.M. (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D.M.A.(음악박사학위)를 The Leo and Margaret Presidential Full Scholarship(전액장학금)으로 취득한 후 95년에 귀국하여 계명대학교등에 출강 하였으며, 2004년부터 8년간 총신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며 찬송가학, 반주법, 연주와 비평등을 강의하며 연주와 저술하였다. 2012년부터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찬송가학, 합창과 합주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찬양 (1)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수 6:20)"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칼과 활과 방패를 동원한 무력의 방법이 아닌 그 저성을 돌기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전쟁의 전략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 하나님 이시기에 가능한 방법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떤 상황입니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둘째 백성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음

악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은 악기요, 백성들의 외침은 노래와 찬양이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의 나팔소리를 반주로 하여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것은 거기에 음악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모름지기,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침이야말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이다(시편 89:15)" 무슨 말입니까? 소리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소리치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인도자와 사역자들은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벅찬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소리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 김지연

Arizona State University 에서 작곡과 박사학위를 받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교회음악을 2년간 공부하였다. 현재 상명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음악이론과목을 가르치는 책임강사로 있으며, 예배음악웹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음대에서 배우는 Music Theory(예출판사)>의 저자이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3년 공백 깨고 돌아온 힐송... 새 앨범 'Great I AM'으로 활동 재개

현대 예배음악 대표 사역팀 복귀에 전 세계 교회 다시 주목



세계적인 워십팀 힐송워십(Hillsong Worship)이 최근 새 앨범(EP) 'Great I AM'을 발표하며 오랜 공백을 지나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의 복귀 소식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팬들은 "힐송이 다시 돌아왔다"며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힐송워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Great I AM' 프로젝트와 관련된 라이브 찬양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약 3년 전 영상 이후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가 거의 없었던 이 채널에는 약 5개월 전 새 EP 발매 소식이 올라온 이후 수록곡 영상들이 꾸준히 공개되고 있다.

특히 'Fighting For Us', 'Yahweh Great I AM', 'Good News', 'Yes He Lives' 등 주요 곡들은 공개 이후 조회 수가 빠르게 늘어나며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곡들은 예배 현장에서 새 찬양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다시금 힐송워십 특유의 예배 음악이 주목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도부 논란 속 사역 재정비



GOODTV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1000회 특집 방송 메인 화면 사진. ©GOODTV

힐송워십의 활동이 한동안 뜸했던 배경에는 교회 내부의 위기가 있었다.

힐송워십은 세계적인 교회 네트워크인 힐송교회(Hillsong Church)의 예배 사역팀으로, 2020년대 초반 교회 지도부와 관련된 여러 논란으로 조직 재편을 겪었다.

특히 교회를 창립한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가 2022년 도덕성 논란 속에 글로벌 담임목사 자리에서 사임하면서 교회는 리더십 교체와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교회가 힐송 네트워크에서 독립하거나 여러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등 변화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힐송워십을 비롯한 음악 사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음반 제작과 콘텐츠

활동이 한동안 크게 줄어들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새 EP 발표와 함께 찬양 콘텐츠가 다시 공개되면서 힐송워십의 음악 사역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회 예배문화에 큰 영향

힐송워십은 세계 교회 예배음악 흐름을 이끈 대표적인 워십팀으로 꼽힌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힐송교회의 예배 사역팀으로, 1990년대부터 현대적인 예배음악을 선보이며 세계 교회의 예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Oceans(Where Feet May Fail)', 'What a Beautiful Name', 'Mighty to Save', 'Cornerstone', 'Hosanna' 등이 있다. 이 곡들은 한

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교회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며 현대 예배 찬양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자리 잡았다.

힐송워십은 또 다른 사역팀인 힐송 유나이티드(Hillsong United), 힐송 영&프리(Hillsong Young & Free) 등과 함께 수많은 예배곡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독교 음악 사역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

◆힐송과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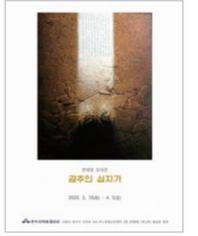
힐송의 찬양은 한국교회 예배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Shout to the Lord', 'From the Inside Out', 'Still', 'King of Kings' 등 힐송의 여러 예배곡들은 한국어로 번역돼 국내 교회 예배에서 널리 불려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 확산된 현대적 워십 문화와 청년 중심 찬양 사역의 흐름 속에서 힐송의 음악은 중요한 참고 모델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계에서는 힐송이 밴드 중심의 예배 찬양 스타일과 라이브 워십 앨범 제작 방식, 대중성과 신앙 고백을 결합한 예배곡 작법 등을 통해 국내 워십팀과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교계에서는 힐송워십이 현대 예배음악의 형식과 흐름을 세계 교회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 이번 'Great I AM' 프로젝트를 통해 힐송워십이 다시 글로벌 예배 사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이어갈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 온누리아트갤러에서 4월 5일까지

기록 미술가 전태영 작가의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가 온누리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에 위치한 온누리아트갤러리 1관과 2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온누리아트갤러리가 마련한 이번 초대전은 외부 작가를 초청해 진행되는 전시로, 신앙적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태영 작가는 제10회 대한민국기록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기록 미술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사람을 얻었으니', '소망', '생명 시내 넘쳐흘러서 마른 땅이 적시니' 등 기독교적 상징과 의미가 담긴 작품 약 30점을 선보이며 신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신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올림(75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백경수)	1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이훈(선우 용)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195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성)(57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8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용	10 조정민 목사의 담담담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 (한 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 (권기용)	30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2(6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7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6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명민 목사
오전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7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제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3월 10일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72회)	00 하나님의 음성(181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508회) 마태복음 21강	00 만나 워십 감명삼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최현석 목사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2강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홍인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102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2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삼(3회)	10 새롭게하소서(11413회) 김여호수아 목사 1부	00 김재원의 광야예언(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호 지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매일 주와 함께	20 RE바이블(19회)	00분 CBS NEWS 10 20분 성지가족(26회)	00 내 삶의 행복(198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10회)
11:00	00 7000마리클-예수사랑여기에 신은감리교회 / 박지현 목사 50 신앙에세이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비전설교 새문안 (이상학)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64회) 50 예수동행집회(12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9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7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5강 목중서신 I : 위의 것을 씌우라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8회) 5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금급자 하나님을 만나다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2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교회)(334회)	00분강간세 화요채플(73회) 30분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7회)	00 비전설교 중앙성경 (한기재)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1회) 2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81회)	00 울포원(717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등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6회) 50 위대한 유산	00 GOODTV 특별간중 2025 감사특방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513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1059회) 정학영 대표 1부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55회)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5회)
오후 15:00	40 7000마리클-예수사랑여기에 신은감리교회 / 박지현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301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555회) 레위기 10강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햇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박충권)	00 하요중 목사의 창세기 강해(43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2회) 5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23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1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에세이	00 다크 더 로드 2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임다윗)	30 [말씀] 박신중 목사(열반인온누리교회)(288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분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2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권영구 30 부흥 여가인 여수광림교회	00 리바이브 헤리티지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금정 (김형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THE NEW 하늘빛찾기(21회) 50 예수동행집회(15회)	00 TV강단 용인송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출리씨즈교회 사대현 목사 30 고백력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복(45회) 기독교 시 이야기
19:00	20 더 초존 시즌5(더빙)(4회) 15세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50 예수동행집회(15회)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600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령교회 윤보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 (이경은) 40 GOODTV 특별기획 폐허속에 갇힌 천년의 시간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2년 03월 10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화요성령집회-(11회) 40 방주타GO(2회)	00 CBS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턴제일(이재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78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메신저스 김선교 선교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7회) 50 CTS뉴스	10 GOODTV 특별기획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날은 몇 월 며칠? 40 GOODTV NEWS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508회) 마태복음 21강 50 살롱 뽕롱(43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길(11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2강 권수경 목사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송성: 은혜로군(54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13회) 김여호수아 목사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7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4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2강 목중서신 I : 충만한 교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3회)
23:00	10 [CTS민음의 영자] 별세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야 산다 제6부 별세의 치유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카일 아이들만의 지붕을 뚫는 믿음(4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2회)	10 2025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1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6회)	00 이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9회)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8회)
24:00	00 Calling GOD(2446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행복한 쉼터 청주중앙순복음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107회)	10 성지가족(26회) 50 성경포럼 이것이 궁금하다(43회)	00 한소말교회 한밤의 기도회(105회) 4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1:00	00 CTS 30년 믿음의 영적 CTS특집다큐 한국 성지순례 별별이야기 4-5부 40 위대한 발견 5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 김진산 목사 4회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말씀] 이재준 목사(온누리교회)(665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61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23회) 4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28회)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정민 운동선수	10 사본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10회)	30 TV강단 승리(백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2강 권수경 목사 50 할렐스토리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48)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19회)	00 울포원(249회)	00 세미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중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 (김학중)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33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9회) 고린도전서 28강 50 CBS 교회소식(1041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5회) 감성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57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